

한교총, 한교연 통합승인, 한기연 시대 열려



‘가칭 한국기독교교연합’(이하 한기연)의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창립총회에서는 임시 대표회장 에 예정 통합 총회장 이성의 목사, 예정 합동 총회장 김선규 목사, 한교연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기독교대연합교회 감독회장 전명구 목사를 인준하고 4인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임시 사무총장에는 예정 합동 총무 김창수 목사를 선임했다.

최근까지 정관안 협상과정에서 진통을 거듭한 가운데, 지난 11일과 14일 각각 정관안을 승인하면서 단체 통합을 결정했다. 이에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는 46개 교단이 참여한 가운데 ‘한기연’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한기연은 기존 한교연 법인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한교연 법인을 재편하기 전까지 임시 사무실은 서울 대치동 예정 합동 총회본부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정관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이 미비했던 점을 고려해 정관을 임시보고로 받고, 미비점을 보완한 후 12월 정기총회에서 최종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관심을 모은 대표회장 선출과 관련조항에는 2011년 한기총 7·7 개혁정관을 근거로 교단순번제가 적용됐다. 교단 규모에 따라

‘가’ 군(5천교회 초과), ‘나’ 군(5천교회 이하 1001교회 초과), ‘다’ 군(1천교회 이하) 규모로 구분해 ‘가-나-가-나-가-다’ 순으로 대표회장이 선출된다. 대표회장 후보 자격에는 현직 총회장은 물론 총회장 역임한 인물도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특히 과거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금권선거 등 부작용을 고려해 대표회장 선거를 치르는 대신 상임회장단이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되는 선출구조를 만들었다. 상임위원회는 1천교회 이상 교단의 총회장과 1천 교회 이하 총회장 중 5명, 단체협의회 대표 1명이 맡는다. 정관에서는 상임위원회 수는 줄여 단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고, 자문기구 형식의 중경대표회장들로 구성된 원로회의를 신설했다.

채택된 정관안에 따르면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단임이다. 상임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최대 재임기간은 4년이다. 법인이사는 2년 임기로 15명 이상 30명 이내이며, 감사의 수는 3명이다.

이날 예정 대신 이종승 총회장은 이날 경과보고에서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서 하나가 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복음전파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축하를 전했다.

김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는데 우리

가 미루다 이제야 창립을 하게 된 것 아닌가 싶다. 이제에는 하나 되는 것을 잘 지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교연 정서영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분열의 역사를 거듭하면서 교회와 세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 이제에는 하나된 가운데 대정부, 대사회 관계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정 통합 이성희 총회장은 “동서남북 큰 교회, 작은 교회가 하나 돼 한기연을 창립했다. 다시는 분열하고 돌아서는 일이 없이 대부흥의 물결을 다시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제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주요 교단들이 한 울타리로 모였다는 점에서 향후 역할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정관 경과조치에서는 양 기관의 자산과 부채는 승계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앞으로 3개월 동안 법인 재편 절차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연합과 교단장회회가 가칭 ‘사)한국기독교교연합(한기연)’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한기연은 16일 오전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경신과 변혁의 아이콘이 되어 한국교회 다음세대와 한국사회의 희망이 될 것을 소망했다.

각 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창립총회에선 정관안을 채택하고, 오는 12월 첫째 주 예정된 제1회 총

회까지 이 정관대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제1회 총회까지 양 단체의 김선규 목사(예정합동 총회장)와 이성희 목사(예정통합 총회장), 전명구 감독(기감 감독회장), 정서영 목사(한교연 대표회장•예정합동개혁 총회장) 등 4인이 공동으로 대표회장 직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임시 사무총장에는 각 교단 총무 중 가장 연장자인 김창수 목사(예정합동)가 맡았다.

채택된 정관안에 따르면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단임이다. 상임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최대 재임기간은 4년이다. 법인이사는 2년 임기로 15명 이상 30명 이내이며, 감사의 수는 3명이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는 김선규 목사의 사회로 김국경 목사(예정합동신복 총회장)의 개회기도와 이종승 목사(예정대신총회장)의 경과보고, 고시영 목사(한교연 통합추진위원장)의 정관안 보고와 채택, 임시조직 보고와 채택, 박위근 목사(예정통합 중경총회장)와 서기행 목사(예정합동 중경총회장)의 격려사, 김요셉 목사(한교연 중경대표회장)의 폐회기도 순서로 진행됐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정서영 목사(한교연 대표회장)의 인도로 김원교 목사(예성 총회장)의 기도과 박남수 목사(예정개혁교회)의 성경봉독, 전명구 감독의 ‘하나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하의 설교, 신상범 목사(기성총회장)의 축도 순서로 진행됐다.

사)한기보협 광복 72주년기념예배 및 제9회 신학세미나 개최

지왕철 대표회장 “성경원형회복”운동은 한국교회의 변화이를 것



(사)한기보협(대표회장 지왕철 목사) 신학위원회 위원장 한홍교 목사는 위원회에서 격월로 실시하는 제9회 신학세미나를 은혜롭고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성황리에 잘 마쳤다.

지난 8월18(금) 오전 11시~ 오후 4시30까지 종로 여전도회관 14층 제2강의실에서 광복 72주년 기념감사예배 및 신학세미나가 1~2부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1부는 815광복72주년기념감사예배가 협의회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김길중 목사(협의회 공동회장)의 기도, 김영호 목사(예장보수합동 총무)가 성경 창 35:1~7절을 봉독하고, 찬양사역자 도갑을 목사의 특송, 신오성 목사(예정영신 총회장)는 “열 뽕 열”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1.국가 안정과 통일(경제, 청년일자리)을 위하여, 2.협의회 회원교단, 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3.한국교회(차별금지법 취소)를 위하여 백창준 목사(예정합동정통 부총회장)가 특별 기도를 가졌다.

이어서 한기보협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는“성경원형회복”운동은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데 있다면서 이에 대해 분회발전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인사말씀을 전했다. 아울러 신학위원회 위원장 한홍교(협의회 상임회장)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날 중식을 마친 2부 순서로 신학위원장 한홍교 목사의 사회로 세미나가 진행되면서 1강의에 조성근 목사(예정개혁총회 총회장)가 “요한계시록의 일곱교회”에

대해서, 2강의에 장한국 목사(예장진리 총회장)는 “세 유월절을 통한 구원계시와 역사연구”에 대해서, 3강의는 선환규 목사(예정총회(영신)총무)가 “성경의 언어 이해하기, 물”에 대하여 각각 열강을 가졌다.

이날 세 분 교수의 열강을 요약해서 정리한다면 조정근 목사는 “일곱 교회에 대한 강의에서 구약 약 4,000년 동안 어떻게 지켰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 그 중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것같이 주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법대로 진리사역을 한 것이고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을 구분해서 보면 예수 이름이 나오지를 않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사랑의 법 그래서 첫 계명의 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 둘째 계명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 라고 설파했다.

두 번째 강의에 나선 장한국 목사는 “세 유월절을 통한 구원계시와 역사 연구에 대해서 강론하는 가운데, 주님이 공생애 3년간 세 번의 유월절에 행하신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 모두 실제적인 관계이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구원계시이다.

첫 번째는 우리 심령성전을 청결케 하여 우리를 새롭게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것인 산 제물로 되게 하신 후, 두 번째는 이 산 제물 된 우리에게 오병이어 표적의 실상인 생명의 빵인 예수님, 즉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이를 우리가 믿고 받아먹으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다. 세 번째로 주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세 번째 유월절은 우리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게 하실 것임을 계시했다”며 열강 했다.

세 번째 강의에 나선 선환규 목사는 성경의 언어 이해하기—물에 대해 언급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사용되어지는 부분에서 따라서 약간의 달라질 수 있으나 구약에서는 주로 씻는 물과 홍해와 세례의 옛사람이 죽는 물로 해석되어지고, 신약에서의 생수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표와 선한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리므로 성경의 언어는 합당한 적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의하였다.

이날 협의회 산하 교단과 단체들, 교계에도 좋은 인식을 주고 있어 많은 관심을 가진 지인들과 인사들이 자리를 같이 한 가운데 이날은 앓을 자리가 없어 서서 강의를 끝까지 경청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한편 사)한기보협 신학위원회는 제3회 미사바 기도회를 오는 9월 양평대한수도원에서 가질 예정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육필 성경필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협의회 소속 각 교단 산하 교회들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던 계기를 기념하여 로마서를 직접 필사함으로써 종교개혁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성경을 친히 쓰게 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 힘쓰게 할 것을 주문했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보수) 총회 제102회 총회공고

표어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사43:19)

주제 :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시 16:3)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윤석철 박사
(천복교회)



전예희 목사
(신광교회)



정호석 목사
(진주사랑의교회)



임상국 목사
(천복복지교회)



주지왕 목사
(사천대곡교회)



서재식 목사
(풍성한교회)



김상대 목사
(반석교회)



송인섭 장로
(양문교회)



이전수 장로
(천복교회)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황홍주 목사

- 일시 : 2017년 9월 12일(화) 정오 12시 점심(부부동반)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가산동 151-47)
- 개회예배 오후 2시~ 제 102회 총회개회
- 장소 : 동천교회(총회장 이규필 목사 사무)
- 전화 : H.P010-7474-3173, 496-0181(FAX)

합동보수교단은 뜻을 같이 할 교회와 기관, 교단 가입을 환영합니다.
합동보수교단 소속 신학교는 목회에 뜻이 있는 사명자를 모집합니다.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윤 석 철 박사

경남신학원
학장 정 호 석 목사

영남대구신학원
학장 황 흥 주 목사

사단법인 예정합동보수연합신교회
이사장 이 규 필 목사

총 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가산동/동천교회)
☎ H.P 010-7474-3173, 02)854-1326, 496-0181(Fax)

언론의 적폐, ‘마녀사냥’ 식으로 돌아가기

대구 어린이집 건디다 못해, 언론중재위에 제소



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지난 6월 29일 대구 MBC 방송에서는 뉴스를 통해, 대구 모으린 이 집에 대한 보도를 하였다. 그 제목은 자막을 통해 “혐오스러운 노출에 초등생 집단 충격”이었다. 그 내용은, 이 장애아 시설에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봉사활동을 왔는데, 그 학생들에게 이 시설의 교사가 동성애의 문제점에 대한 동영상 보여주었다. 그런데 동성애의 부적절성과 폐해를 보여준 것이고, 그 중에 죽은 개나 시체와 같은 혐오 장면이 있었으며, 동성애(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감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동성애의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가가 강의한 것을 유튜브에서 다룬 받아 학생들에게 보여준 것이지, 이 시설에서 이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아이들에게 성 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뿐만이 아니라, 동성애의 문제점과 폐단을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왜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어야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 이후 대구MBC는 6월 29일, 6월 30일, 7월 7일, 7월 20일 등 수차례에 걸쳐, 같은 사안을 보도하기에 이른다. 또 대구MBC를 본, 타 언론들이 같은 내용을 복사(複製)로 보도하게 된다. 그렇다면, 대구MBC의 보도는 정확하게 이뤄진 것인가? 6월 29일 첫 보도한 것을 분석해보자. 우선, 자막으로 ‘혐오스러운 노출에 초등생 집단 충격’이라고 보도했는데, 그 날 아이들은 자유스럽고 자연스런 분위기 속에서 영상을 보았다고 한다. 또 경찰과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심리검사기록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 시설 관계자들이 갑자기 성 교육을 시킨다면서 영상물을 보여 주었다고 하는데, 성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시설이기에, 에이즈를 통해 뇌 세포가 파괴되어, 몸이 마비되는 등 후천적 면역결핍증으로 인한 문제점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죽은 개나 시체 사진을 띄워놓고, 동성애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죽은 개의 사진이 아니라, 외국에서 동물 성애자들이 개에게 피해를 입

힌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보여 준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동성애단체 인사의 입을 빌어 ‘외국에서처럼 초등학교에서도 동성애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방송의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케 한다. 그렇다면, 동성애 옹호교육은 괜찮고, 동성애 문제점에 대한 교육은 안 된다는 것인가? 그 외에 성교육 전문가의 말이라면, ‘성소수자 혐오를 만들뿐 초등학생에게 교육적 가치는 없다’고 보도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에이즈의 실상은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에이즈 환자가운데 남성 동성애자가 92%를 차지한다는 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동성애자 활동가를 강사로 초청하는 단체의 사람들, 성교육 전문가로 등장시키는 것은 방송으로서 균형 감각이 결여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이 장애아 어린이집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었고, 지금은 존폐 위기까지 가게 되었다고 한다. 이 단체는 대구 지역에서 지난 1990년 발달장애아 조기 교육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연인원 1,500명 정도를 체계적인 특수 교육을 시켜온 시설이다. 현재도 발달장애아동, 자폐성장

애아동, 청각장애아동, 뇌병변장애아동, 다운증후군아동, 언어장애아동, 지적장애아동, 비장애영유아 등 77명이 재원 중에 있다. 이곳은 사랑과 헌신이 인정되어, 여성가족부장관상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을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건전하게 활동해 온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막대한 권력과 편향된 시각으로, 두 달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도를 일삼음으로, 이 어린이 장애인 시설은 큰 충격에 휩싸여 있고, 외부로부터 압력과 함께, 매우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이를 건디다 못해, 이 시설에서는 지난 8월 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이다. 우리 사회는 ‘적폐 청산’이라는 사회적 화두에 몰두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언론들은 동성애의 폐해나 문제점에 대한 것은 방어리처럼 합구하면서, 그것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에는 마치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것이야말로 적폐이며, 이를 청산해야 한다. 언론이, 이 장애아 어린이집이 지난 30년 가까이 지역 장애아들을 돌본 노력에 대한 평가는 고사하고, 정상적으로, 동성애 문제점의 교육에 대하여, 마치 ‘마녀사냥’ 식으로 달려들어, 두 달간 선량한 어린이집과 관계자들을 괴롭힌 것은 우리 사회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성경적세계관으로 본 동성애’ 발간

나기연 동성애 대책위, ‘동성애 문제 누구나 알기 쉽도록 복음적 관점에서 설명해’

나라사랑기독교인연합 동성애대책위원회가 최근 한국교회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쉽게 제작한 ‘성경적 세계관으로 본 동성애’ 소책자를 발간했다. 나기연은 책 발간에 앞서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대해 궁금한 점을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했다. 나라사랑기독교인연합(공동상임의장 전 권영해 장관, 류광수 목사) 동성애대책위원회는 책 머리말을 통해 ‘동성애 문화는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결국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성경적세계관의 근본을 허무는 사탄의 전략이지만 동성애자를 미워하거나 혐오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동성애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를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시대 크리스찬에게 남겨준 사명이다’고 강조한다. 책 내용은 5개 파트로 나누어 Part1, ‘동성애 어떻게 볼 것인가?’ Part2, ‘동성애 끝은 에이즈?’ Part3, ‘동성애와 함께 춤추는 나라?’ Part4, ‘동성애와 입법전쟁’ Part5, ‘동성애 확산은 사탄의 음모’, Part6, ‘탈동성애와 복음’으로 구성되어있다. Part1. ‘동성애 어떻게 볼 것인가?’



Part5. ‘동성애 확산은 사탄의 음모’는 동성애 문제는 성경적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의 영적전쟁임을 밝히고, 동성애는 다른 것이 아닌 틀린 것이며, 인권문제가 아닌 타락 문제인 동시에, 권리의 문제가 아닌 윤리문제임을 밝혔다. 또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며, 후천적이고 학습되며, 영적문제로 인한 정신질환이며,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성소수자 주장에 대한 허구성을 밝혔다. Part2. ‘동성애 끝은 에이즈?’는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성을 밝히고,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를 비롯한 연관 질병들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동성애 에이즈를 방지하면서 정부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실태를 지적했다. Part3. ‘동성애와 함께 춤추는 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실태와, 언론의 동성애 미화, 교육부의 친동성애 교육, 질병관리본부의 동성애에 대한 침묵, 그리고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를 통한 동성애 차별금지 시도 실태 등을 고발했다. Part4. ‘동성애와 입법전쟁’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원하는 입법은 무엇인지, 차별금지법의 폐해와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제, 동성애 합법화는 곧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핍박임을 경고했다. Part5. ‘동성애 확산은 사탄의 음모’는 동성애 배후에 사탄이 뉴에이지운동, 쿼인신학, 사탄송배자들을 통해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동성애 등 성적타락이 재앙을 부른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 Part6. ‘탈 동성애와 복음’은 이 책의 결론 부분으로서 동성애자 역시 복음으로 구원 받고 치유가 가능하며 동성애자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 받고 새로워 질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이들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책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나라사랑기독교인연합 사무국장 010-3521-9088, 070-7207-2202로 문의하면 된다.

나기연, ‘나라와 후대 위해 전국서 간절히 기도’

8.15광복 72주년, 건국 69주년 맞아 전국 동시 기도회 개최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교로: **이종진** 목사 명 **이** 사장: **정기환**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동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 jntvcpi@naver.com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나라사랑기독교인연합이 8.15광복 72주년, 건국 69주년을 맞이해 8월 12일(토) 오전 ‘나라와 후대를 위한 기도회’를 전국 동시 개최했다. 이날 기도회는 최근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에 따른 전쟁의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한국이 세계복음화의 주역 국가가 되기 위해 복음가진 후대들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나기연(공동상임의장 권영해 전 장관, 류광수 목사)은 매년 개최하던 광복 및 건국절 기념 야외무대 행사를 취소하는 대신 ‘나라와 후대를 위한 기도회’로 진행했다. 이번 기도회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천안, 원주, 전주, 함양 등 7곳

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기도회는 전국과 해외로 생중계되어 전국과 해외에서도 방송을 통해 기도회에 동참했다. 이날 메인행사장인 서울 예원교회(담임 정은주 목사)에는 1천5백여 명이 참석했다. 나기연 공동상임의장 류광수 목사는 기도회에 앞선 메시지를 통해 “지금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 가운데 처해있으며, 이때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전쟁을 일으키려는 악한 영의 세력부터 무너뜨리는 영적전쟁을 통해 전쟁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또 “나라를 위해 격정하는 사람은 많아도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며 참된 애국운동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역설했다. 기도회는 나기연 공동집행위원장 김대은 목사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합심기도는 ‘복한 복음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대한



민국 위정자들을 위한기도’ 제목으로 박용배 목사(나기연 통일준비위원장)가 인도했다. 이어 윤성주 목사(제자교회)가 ‘교육과 문화 살릴 후대운동을 위

한 기도’, ‘순교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이어갈 후대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합심기도회를 인도했다. 마지막으로 김대은 목사가 ‘전

세계 7천장 살리는 전도운동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인도하고 축도 마쳤다. 이날 기도회 내내 간절한 부르짖음이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담임목사 김창통
성담목사 박영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GD FC
GOD DESIGN FELLOWSHIP CHURCH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향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오순절교회협의회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전성서수원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배 안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기도원 예배	주일	오후 3:00	푸른초장기도원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기도실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2층)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6:00	지하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지하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성전
중고등부 기도회	토요일	오후 4:00	기도실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 이 나라 이 민족을 무당사상으로 부터 출애굽하자!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원원(이전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어린이집 [02-464-3107]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강사 박수영 목사

- 한국어목성장학술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 행복샘전인유센터 원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최병욱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로 고침받음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예배 시간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구광역시 동구 요목로 36-5(요목동) 3층 우)41232
☎ 053-752-8238 010-8537-8291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담임목사 이 규 필
(합동보수 총회장)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역대상 16:34)

예/배/시/간/안/내

주일 대 예배	오전 11:00	영 아 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유 치 부	오전 9:00 오후 1:2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유 . 초 등 부	오전 9:00 오후 1:20
금요새미기도회	오후 9:00	중 . 고 등 부	(주일)오전 11:00 (토) 오후 6:00
구역예배(금)	각 구역별로	청년 . 대학부	(주일)오전 11:00 (토)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성령충만기도회	(수) 오후 7:30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한교연 광복 72주년기념 독도기도회 개최

순교자 유가족, 국가유공자 등 160여 명 참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광복 72주년을 맞아 순교자 유가족 및 국가유공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릉도 독도기도회를 개최해 순교정신 계승과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했다.

지난 8월 7일부터 10일까지 경복포항과 울릉도 죽도 등지에서 개최된 광복 72주년 특별기도회에는 손양원 목사의 딸 손동희 권사 등 40여명의 순교자 유가족을 비롯해 독립, 국가유공자 등 80여 명과 한교연 임원 법인이사, 교단 총무, 독도수호위원회(위원장 주녹자 목사) 산하 119독도지킴이 회원 등 총 160여 명이 참가해 일제에 항거해 목숨바쳐 신앙을 지키고 나라 사랑의 정신을 계승해 우리땅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첫날 오후 7시30분 포항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개회예배에서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는 광복 72주년을 맞아 우리의 영토인 독도가 불의한 나라 불의한 세력에 의해 참력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또한 우리의 국토 수호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도수호기도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특히 이번 기도회에 순교자 유가족과 국가유공자들을 초청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이분들의 나라를 위한 순교한 희생정신을 본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독도수호위원장 주녹자 목사는 환영사에서 “오늘 독도기도회를 통해 이 나라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체험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한국교

회를 향해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면서 신앙선열들이 놓은 초석을 다짐을 삼아 전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날 개회예배는 이우성 목사(개혁신대 총회장)의 사회로 주녹자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소병기 목사의 기도, 김효중 목사(법인이사)의 설교로 진행되었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강동규 목사), ‘독도수호를 위해’(홍찬혁 목사), ‘한국교회를 위해’(윤경원 장로) 특별기도하고 김옥자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튿날 오전에 포항을 출발해 울릉도에 도착한 한교연 독도방문단은 죽도에서 119독도지킴이 주관으로 기도회 가졌으며, 저녁에는 저동침례교회에서 기독교시민중앙협의회(대표회장 원종문 목사) 주관

으로 광복 72주년 기도회를 각각 가졌다.

셋째날 오전에 독도에서 개최하려던 독도기도회는 높은 파도로 독도행 선박 운항이 중단되면서 울릉도 통구미 바닷가 거북바위에 160여명이 모여 기도회를 가졌다.

주녹자 목사의 사회로 열린 기도회는 박경진 장로의 기도와 환인찬 목사(법인이사)의 설교, 강호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했으며, 이어 김 훈 실장이 독도선언문을 낭독한 후 김희신 목사(공동회장)의 만세삼창, 이삼열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환인찬 목사는 설교를 통해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되찾기 위해 수많은 희생이 있었으며 특히 믿음을 위해 목숨을 버린 순교자의 거룩한 피값으로 세운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가 독도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결단의 시간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바로 서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힘 있게 전진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김 훈 실장이 대독한 광복72주년 독도선언문은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에서 이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역사와 시대를 향하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깨달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든든한 반석위에 세우시고 남북 평화 통일의 날을 앞당겨 주실 것”이라며, “이 땅에 진정한 주님의 살림이 임하는 날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선자적 사명을 바로 감당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가 이들을 돕고 있다.

또한 탄자니아, 베네 등 5개 나라에 우물사역과 아이티와 네팔 등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긴급구호사역을 진행해왔다. 지난 2월에는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 시내 돈궤이 지역에 소재한 비엔티안 글로벌스쿨(이하 VGS, 이사장 최준은, 교장 이인열) 학교 강당 증축을 후원하여 완공식을 가졌다. 현재는 중고등학교 신축을 위한 ‘희망의 학교’결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네팔 IT센터 완공식을 갖는다.

CTS기독교TV · 영남신학대학교 MOU 체결

“전문인 미디어 선교사 양성하고 산학협력 프로젝트 발굴”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와 영남신학대학교(총장 오규훈)는 21일 CTS멀티미디어센터에서 MOU를 체결하고, 전문인 미디어 선교사 양성 및 산학협력을 위한 상호 정보 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산학협력을 위해 상호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실질적인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의 협력 활동을 더 널리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홍보수단을 상호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CTS 김관상 사장은 “CTS의 다양한 방송 기획과 제작 노하우를 공유하며 영남신학대학교의 미디어 선교 사역을 위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협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호 업무 추



진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남신학대학교 오규훈 총장은 “신학 교육 기관인 영남신대와 영상 선교 미디어인 CTS의

협력을 통해 상당한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다.”며 “영남신대의 신학 교육 콘텐츠들이 잘 활용됨으로써 CTS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환영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60:1)



예장웨신 총회장 이명풍 목사

만물의 새로움을 몸으로 느낄 때 세상은 달라지고 구태와 구습을 버리면 존재는 혁신됩니다. 마음가짐 하나 바로 바꾸면 삼라와 만상이 교체되고 우주의 중심이 이동하여 주도적 대세로 역사를 주관합니다. 분초할나야 엄중하게 바뀌어 가는 변화와 대체의 연속입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만물은 새로워지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숨을 불어 넣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세상은 새롭게 하는 이치와 운용시스템으로 끊임없는 신선함과 생동감으로 새롭게 창조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같은 일상의 반복 같지만 어제와 같은 오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1년간은 하루하루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처음 가는 길을 걷는 걸음처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기회를 얻은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교단적인 아픔과 상처가 있었기에 가슴앓이와 몸살이를 거치면서 더욱 단련되고 소중한 면역체계가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절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었지만 총회원들이 하나같이 단합하고 협력하여 오히려 전화위부의 기회로 총

회를 정상화시키고 미래지향적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새날의 위상과 기여를 위하여 착실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제102회 정기총회를 맞이합니다. 램프의 남은 심지를 갈아 새 심지로 교체하여 불을 밝히듯 웨신총회여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사60:1) 어려운 시기에 함께 손을 잡고 한하기를 마치고 새날을 맞이하는 총회원들이 자랑스럽고 대견합니다. 빛고를 광주에서 다시금 웨신의 빛을 접하여 횡보를 높이 듣고 빛을 비추어 세상을 밝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야흐로 한국교회는 변화와 혁신, 연합과 통합의 모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웨신도 이 장강의 대세를 합류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계와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교단적인 아픔과 상처가 있었기에 가슴앓이와 몸살이를 거치면서 더욱 단련되고 소중한 면역체계가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절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었지만 총회원들이 하나같이 단합하고 협력하여 오히려 전화위부의 기회로 총

러운 후배들과 함께 새로운 사역의 지평을 열어가야 합니다. 제102회기에서는 웨신의 대문을 활짝 열고 범 웨신의 시대를 향하여 새롭게 집 단장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임원진은 이러한 소임을 잘 받들고 수행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혁신과 대 통합을 위해서 교단은 앞장서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한번 제102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신 총대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 총회를 통하여 웨신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귀한 총대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섬기는 사역위에 하나님의 기쁨부으심과 창대케 하는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인코리아, 고양 원흥동에 새 동지

오는 10월 네팔 IT센터 완공식 등 하반기 사역 진행



국제구호단체인 사단법인 게인코리아(대표 최호영 목사)가 사무실을 고양시 원흥동으로 이전했다. 원흥역에서 1분 거리인 반도유스퀘어 808호에 새 동지를 틀었다. 게인코리아는 지난 2009년 4월 설립되었으며 서울, 수원, 청주, 대전, 용인, 부산, 인천 등 7개 지역에서 차상위 계층의 청소년 50명을 결연하여 100명의 대학생 멘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웨신) 제102회 정기총회 공고

주제 :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 60:1)



이명풍 목사
(빛교회)



김안식 목사
(월만한물가교회)



허창범 목사
(푸른솔교회)



허중우 목사
(바울선교교회)



신연창 목사
(성암교회)



박재예 목사
(영도교회)



김명환 목사
(생명샘교회)



오상열 목사
(승리교회)



김기출 목사
(평강교회)



김정욱 목사
(충일교회)



최선녀 목사
(소망교회)

제 102회 웨신총회 성총회

- 일 시 : 2017년 9월 4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푸른솔교회(부총회장 허창범 목사시무)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11번 안길47
- 전 화 : 푸른솔교회 062-953-4620

- 교통편 문의 : 총회총무
신연창 목사 010-8602-3009

본 총회는 보수교단으로서 뜻을 같이할 총회 및 노회, 개 교회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목사안수 및 교단 가입문의 : 010-8602-3009)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웨신총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72 301호
☎(02)835-2606-7 Fax (02)835-2068 http://ws21.org

■ 靑松 건강칼럼 (578)

“믿고 살게 없다” 인증마크의 배신

정부 인증마크 신뢰성

박명운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이제 믿고 살게 없다” 우리나라 소비자자들이 정부 인증마크를 믿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그동안 ‘친환경’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은 살충제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살충제 ‘달걀(雞卵)’ 사태를 계기로 계란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가 엉터리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살충제 달걀에 ‘친환경 인증’ ‘HACCP(해썹)’ 마크가 붙어있어 소비자들이 ‘달걀 공포증(Eggphobia)’을 호소하고 있다. 달걀은 비교적 값은 싸지만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여 온 국민이 즐겨 먹는 식품이다. 국민 1인당 1년에 240여개의 달걀을 소비하여, 시장 규모가 연 1조8천억 원에 달한다.

지난 8월 14일 살충제 계란이 확인된 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산란계 농장 1239곳 전수 검사한 결과 49곳인 것으로 8월 18일 최종 집계됐다. 하지만 전수(全數)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적당 판정을 받은 계란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살충제가 검출된 농장 가운데 31곳이 친환경 농장, 그리고 18곳이 일반 농장이었다. 또한 살충제 사용이 적발된 산란계 농장 29곳(59%)이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해썹)’을 획득한 곳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소속기관인 경상북도 김천시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 고시에 따르면 ‘친환경’ 축산 인증을 받으려면 유기합성 과정을 거친 농약(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등)과 해당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 의약품 등을 축사(畜舍)뿐 아니라 축사 주변에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연

간 최고 3천만 원의 직불금을 받았다. 또 달걀에 ‘친환경 마크’를 붙여 일반 달걀보다 최대 40%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 농장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금을 받으면서 소비자 신뢰를 배신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저지르는 악덕 행위를 한 것이다. 이에 이들 농장주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을 해야 한다. 벨기에(Belgium)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을 일으킨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한의사협회(KMA) 기자회견(8월 18일)을 통해 정부 조사에서 검출된 5가지 살충제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시했다. 즉, ‘피프로닐’은 과다 섭취하면 구토, 복통, 어지럼증 등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엔 간장, 신장 등 장기가 손상될 수 있다. ‘비펜트린’은 두통, 울렁거림 등의 부작용이 있지만, 에톡사졸·플루페녹수론·피리다벤 등은 상대적으로 약한 독성(毒性)을 띠는 물질이다. 독성에 가장 민감한 체중 10kg 미만 아동이 살충제 계란을 하루 두 개 먹어도 급성 독성의 20% 수준이므로 건강상에 큰 우려는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가 시장, 마트, 편의점 등에서 식품(食料品)을 구입하다 보면 제품에 HACCP, GAP, PGI, 친환경 인증 등 다양한 인증 마크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食藥處)의 안전관리인증인 해썹(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은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거친 제품에 붙는다. 친환경 인증은 ▲유기농(organic) ▲무농약(non pesticide) ▲무항생제(non antibiotic) ▲유기 가공식품(organic) 등으로 구분된다.

해썹(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소비자가 섭취하기 직전의 모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해 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중요 관리점을 정해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위생관리체계이다. HACCP은 과자, 음료, 즉석식품 등 다양한 식품류를 대상으로 한다. 국제기구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인증제도이며, 현재 한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계란의 경우 HACCP은 크게 생산·출하 단계와 유통·소비 과정으로 나뉘어 이뤄진다. 닭이 병원균인 살모넬라 감염 여부, 사육 과정에서 항생제 사용 여부 등을 따져 생산·출하 단계에서 농장들이 기준을 만족하면 농장 입구에 <HACCP 마크>를 붙여준다. 작년 11월부터는 살충제 잔류검사로 HACCP 인증 기준에 포함했으나 이번에 살충제 달걀이 나온 농장 중 절반 이상이 <안전관리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나, 인증제도가 엉터리로 운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친환경농장을 민간 인증기관이 인증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이를 감독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민간 인증기관 64곳의 대표 중 5명, 인증심사원 649명 중 85명이 ‘농관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감독기관과 민간 인증기관 간에 유착과 봐주기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농관원 퇴직자가 설립 또는 취임한 인증기관이 부실 인증으로 인하여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인증업무가 정지된 바 있다.

우수농산물 인증 마크인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증 마크이다. 과일, 채소 등 농산물의 생산, 유통 과정에서 각종 유해성분에 노출될 염려가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기준을 통과한 농산물에 ‘GAP’ 마크를 붙인다. 국내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됐다.

‘지리적 표시’ 인증으로도 불리는 PGI(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는 식품의 명성과 품질 등의 성질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원산지의 이름을 상표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식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고 이를 보호하여 지역 생산자와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WTO(세계 무역 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와 EU(유럽연합)에서 권고하고 있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 코냑(cognac) 지역에서 생산되는 ‘코냑 브랜디(brandy)’를 들 수 있다.

정부 인증마크에도 안전성(安全性)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2011년에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殺菌劑) 파동’은 산업통상자원부의 KC(국가통합인증) 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클로로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등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어 폐(肺)질환 등 현재까지 388명 피해자가 발생했다.

2014년 ‘항생제(抗生劑) 쇠고기·돼지고기 유통’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무항생제(non antibiotic) 인증 쇠고기·돼지고기 9만 마리분에서 항생제가 검출되었으며, 올해 발생한 ‘살충제(殺蟲劑) 계란’ 사태는 산란계 농장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발생했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인증 마크’는 너무 다양하고 기준이 제각각이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운영하는 농축산물 인증 마크는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등 13가지이며, 사육 공간, 호르몬제, 항생제, 유기 사료, 유전자변형식품(GMO)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

정부가 공인한 친환경 인증 업무도 실제로는 민간 업체가 대행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업체와 함께 수행하던 인증 업무를 지난 6월부터 64곳의 민간 업체에 모두 넘겼다. 민간 업체들은 친환경 인증을 내줄 때마다 수수료를 받기에 수익을 위해 더 많은 인증을 내주고 있다. 이에 민간업체들은 건당 80만 원짜리 인증서 장사로 번질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민간 업체의 부실인증 적발 건수는 총 2639건이라고 밝혔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은 지난 8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 달걀은 문제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살충제 달걀을 확인 중이었다. 결국 8월 14일 남양주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되면서 ‘계란 대란’이 벌어졌고, 16일 식약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과를 했다.

이에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살충제 계란 파동을 확대시킨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청와대는 그를 식약처장에 임명하면서 “국민 건강을 책임질 책임자”라고 했지만, 이번 사태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국민의 먹거리와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를 식약처장에 임명해야 한다.

정부는 일반 국민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신뢰’는 한번 추락하면 좀처럼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더 걱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 관리 전반의 후진성과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정부의 능력이라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 이에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안전관리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3박자 건강칼럼 “건강과 운동의 관계”(69)

“개인체력 고려한 적당한 운동이 ‘최고’”



황성주 박사
사랑의 클리닉 원장

건강과 운동을 연결하려면 운동을 지도하는 분들 중에는 선수출신이 많아 스피드타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이러한 지도방법이 초보자의 무지와 겹쳐 운동 후 부작용과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운동을 잘못하면 병이 되기도 한다. 40대 여성이 선호하는 골프의 경우 근육이나 유연성 등 기초체력의 단련 없이 시도하다 득골 골절이나 허리손상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스포츠유해론’도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는 전문체육과 사회체육을 혼동하는 데서 오는 무지의 소산이다.

하루종일 운동만 하는 선수들과 일반인들은 다르게 취급해야 함은 상식 아닐까 싶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려는 분들도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일반인의 경우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하려면 다음의 안전수칙을 염두에 두고 운동을 시작하기 바란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스포츠클리닉에서 자신의 건강상태와 체력에 맞는 운동처방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건강상태가 좋은 시기에 시작하라.
컨디션이 좋아야 운동효과도 크고 운동하는 맛도 느끼게 된다. 운동을 시작한 후에도 건강상태가 나쁜 날은 쉬는 것이 좋다.

둘째,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라.

1~2개월 정도를 준비기간으로 잡아 여유있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감이 생기면 점점 운동강도와 운동시간을 늘려 가면 된다. 평소의 운동부족을 한꺼번에 보충하려는 듯 처음부터 몰아치는 것은 체력의 소모를 초래할 뿐이다. 이 경우 작업삼일이 되기 쉽다.

셋째, 가벼운 운동은 오래 하고 힘든 운동은 짧게 하되 20~40분간 가볍게 땀이 날 정도가 바람직하다.

넷째, 운동의 횟수는 1주에 3~5회가 바람직하다.
그 이하는 운동효과 없고 그 이상은 체력소모와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

다섯째, 운동 전후 5분 정도 준비운동과 마무리운동을 반드시 하라.

여섯째, 일단 시작했으면 꾸준히 하라.
운동을 시작하다보면 한 두 번의 좌절은 누구나 겪게 마련이다. 정 힘들면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해 보라.

일곱째, 탐구하는 자세로 하라.
진지한 자세로 운동하다보면 운동이 인생의 축소판인 것을 알게 되고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운동의 참맛은 바로 여기에 있다. 건강을 위해 하는 운동이라면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라.

지저스타임즈는 광고와 구독료로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독자 제위께

본 신문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일터위에 선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는 여러분의 구독료 및 선교비 및 광고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간 48,000원의 구독료는 우편료 및 인쇄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사는 독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납부제도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구독료와 문서선교를 위한 후원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껏 구독료를 입금하지시 않았신 분께서는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강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

발행인 정기남

· 후원 계좌 하나 : 758-910292-36807 정기남
· 농협 : 455030-56-005509 정기남
· 우체국 : 310029-02-152769 정기남
계좌로 구독료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독자의 실명으로 보내주시며 010-5468-6574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존경하는 독자님들의 구독료로 언론방송신문을 도와주십시오. 1년 48,000원



지저스타임즈
THE Jesus Times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TEL 070)8230-0034, FAX겸용 032)672-3031, H.P 010)5468-6574
E-mail : jtppress@hanmail.net / jtntvcjpj@naver.com



진리총회 대한노회 하계 교역자수련회 열어 사명감다짐

계시록 예언의 비밀의 진수를 깨닫자! 에 큰 역사나타나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총회) 대한노회 하계교역자 수련회가 지난 8월 14(월)-16일(수)정오까지 노회 교육부 주관으로 충북 충주시 양성면 컨벤션리조트에서 개최되어 2박 3일간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신부단장 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종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가운데 수련회가 성료되었다.

대한노회 장한국 목사는 노회 교육부 주관으로 노회원들과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련회에 앞서 서기 박민규 목사의 인도로 개회예배가 진행되어 회계 김

정미 목사가 기도를, 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암 3:7절을 중심으로 "미리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행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서 첫날 저녁 수련회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한 후 2017년도 하계수련회는 노회장 장한국 목사를 주강사로 "주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해 말씀을 전하자 첫 시간부터 웅광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력처럼 뜨거운 열정이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말씀에 심취되었다. 이날 장한국 노회장은 말세에 주의 종들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이때

에 순교를 각오해야 하며, 마지막 때 진리를 외치는 종들로 살아야 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말씀을 선포했다.

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이번 특강을 통하여 말씀에 바로 서야하며 모두가 성도들은 물론 노회의 목회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명자로, 영성회복의 뜨거운 사명자로, 마지막 때 신부단장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줄 것을 기원했다.

대한노회는 2박 3일간 진행된 개회예배에 이어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4일 저녁 첫 시간 인도 회계 김정미 목사, 최순란(주능력교회) 목사의 기도로 주사랑교회 성도가 특송을, 노회장 장한국 목사의 계시록 19장 "주 재림"에 대해서, 15일 오전 9시 인도 부회목서기 김은임(감사교회)목사, 기도에 김진환(주사랑 교회)목사, 찬양에 주사랑교회 성도들, 장한국 노회장은 계시록 20장을 주제로 "천년왕국과 첫째 부활"에 대해 강의했다.

한 여름 '원로목회자 여름 산타' 화제집중

120명의 원로목회자들 산타로 변신해 시민들에 선물 나눠줘

8월 9일 종로5가에 산타가 나타났다.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은 8월 9일 '사랑의 원로목회자 여름산타' 행사를 진행하며 출근길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선물을 나눠줘 화제가 되고 있다.

종로5가역 인근, 기독교연합회관 인근, 대학로 거리는 산타들로 가득했다. '원로목회자 여름산타'들은 사랑의 선물을 나눠주며 읊기 8장 7절의 말씀과 함께 '시작은 세상의 빛입니다'라는 전도문구를 선물했다.

연일 이어지는 찜통더위에 시민들의 불쾌지수가 극에 달한 한 여름,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은 원로목회자들과 함께 산타가 되어 시민들에게 웃음과 축복을 선사했다. 이날 산타로 변신한 120여명의 원로목회자들은 산타 모자와 빨간색 앞치마를 두르고 약 1시간여 동안 정성스럽게 마련한 선물을 출근길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이날 재단 이사장 임원순 목사는 "여름에는 너무 뜨거워서,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걱정 많은 이웃이 너무 많다. 성탄절에 가족·이웃에



게 선물하듯 조금 일찍 맞은 크리스마스에 이웃에게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사랑의 선물을 준비했다. 한여름 크리스마스에 사랑의 폭설이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회장 한은수 목사(한국원로목회자교회)는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저마다 어린 시절의 산타를 떠올리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곤 한다. 하지만 그러한 추억을 떠올릴 산타가 없는 분들조차 우리 주위에 참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면서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슴까지 시러지는 겨울, '사랑의 원로목회자 산타'는 앞으로 계속 그러한 분들에게 찾아가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준비위원장 김진욱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 상임이사)는 "8월 9일 '원로목회자 여름산타'가 사랑의 대작전을 펼친다. 8월의 여름산타는 '8월의 크리스마스'를 의미한다. 선물 안에는 '시작'이라는 단어와 함께 전도편지가 들어있다. 12월 25일 성탄절은 기쁨과 축복의 날이다. 이처럼 8월에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쁨과 축복을 듬뿍 받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추진위원장 이주대 장로(한국기독교광신도총연합회 대표회장)는 "'사랑의 원로목회자 산타' 운동은 2015년 겨울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을 통해 원로목회자들이 산타복장으로 어려운 원로목회자에게 깜짝 선물로 사랑의 감장김치를 전달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사랑의 원로목회자 산타'는 크리스마스, 여름뿐만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활동을 할 예정이다. 2015년 첫 번째 '사랑의 원로목회자 산타' 대작전 이후 단회적인 이벤트성 산타가 아닌 365일 사랑의 산타가 되기로 단어와 함께 전도편지가 들어있다. 12월 25일 성탄절은 기쁨과 축복의 날이다. 이처럼 8월에도 예수님의

학원, 공부, 성적 잠시 잊고 하나님께 뽐~뿌려주세요

〈2017 교회학교 여름행사〉 'LIGHT-세상에 빛이 되는 자녀'(출 3:4) 진행 되어

"작은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을 부르던 아이의 목소리, 캠프 기간 부모님과 떨어져 자야 하는 것이 무서워 용기를 달라 기도하던 아이들, 이렇게 예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기에 감사해요."

성경인물 '모세' 공부하며 믿음성장해 〈2017 광림교회 교회학교 여름행사〉를 7월 15일부터 8월 6일까지 광림교회와 국제광림비전랜드, 전남서지방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여름행사의 주제는 'LIGHT : 세상에 빛이 되는 자녀들(출 3:4)'로 방학을 맞은 영유아 및 청소년들에게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성경 속 인물 '모세'를 공부하며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교육국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행사 중 하나였기에, 교회학교 교사들은 수개월 전부터 교사수련회를 통해

먼저 여름성경학교 주제와 성경말씀을 익히고, 찬양과 율동, 게임 등을 배우며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또 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소중한 추억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로 준비를 했다.

예수님 안에서 몸과 마음이 쉼쉴 자라는 시간

지난번 초등부 캠프에 참여한 김 현 군은 "방학을 하면 학원에 가서 방학특강을 듣느라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놀 시간도 없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에서 놀고 밤새워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고 말한다.

유재란 교사(유치2 부장)는 "작은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으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이의 모습, 선생님을 위해 기도한다며 제 손을 꼭 잡고 예수님

을 부르던 아이의 목소리, 캠프 기간 부모님과 떨어져 자야하는 것이 무서워 용기를 달라 기도하던 아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며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쉼쉴 자라듯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올해도 중고등부 학생들은 수련회를 마치고 전남서지방(지도 감리교회)으로 아웃리치를 떠났으며, 수련회 기간 배운 것을 실제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지역교회 어린이들을 섬기며 여름성경학교를 열어주고, 염전에 나가 부족한 일손을 보태는데 주력했다.

혼탁한 시대에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민중선 목사(광림교회 교육국)는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모세가 이슬라



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 한 것처럼, 어지럽고 혼탁한 이 시대에 교회학교 친구들이 생명을 비추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빛어지고 세워지기를 기도했으며"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양육되도록 많은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피종진 목사 초청 8월 국내·외 성회

1(화)~ 2(수)	Nyskc Family Conference KJJ 2017 주최: Nyskc World Mission(HQ:뉴욕, 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최고선 목사)장소:전주 우석대학교 ☎(063)290-1114 여의도순복음광명기도원(원장 이태근 목사) ☎(031)772-9113 주최: GoodTV부흥사협의회총재 피종진 목사, 사무총장 김용희 목사 서산 엘림수양관(원장 김종복 목사) 제10회 기도차유수련회 ☎(041)682-6901 주최: 일광기도차유(이사장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정요한 목사) 세종평화회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041)852-2211 아산신학연구원(원장 한재갑 목사) ☎ 010-2101-3988 광명 예수소망기도원(원장 박성자 목사) ☎ 010-6363-5091 영광사랑의수양관(교정원 목사) ☎ 010-8319-0191 서울 목양교회(이정일 목사) ☎ 010-4613-8179 부천 소망교회(정민철 목사) ☎ 010-3224-2345
3(목) 오후	
3(목) 저녁	
4(금) 오후	
4(금) 저녁	
7(월)~ 9(수)	
13(주) 오전	
14(월) 오후	
14(월)~15(화)	
16(수) 오후	
17(목) 오후	
21(월) 저녁	
22(화) 저녁	
23(수) 저녁	
24(목) 오후	
28(월)~29(화)	
30(수)~31(목)	

010-5255-7777
GodBless3333@gmail.com
T:02)3411-9191
F:02)401-7770
F:02)3411-9111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총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주최: 오찌이마교구대중교회(김양희 목사) ☎ 90-1609-7696
일본(Japan) 오찌이마교구대중교회(선안수 선교사) ☎ 070-4656-3836
일본(Japan) 아미마영성원(원장 남덕순 목사) ☎ 80-5112-5127
강릉 베데스다기도원(원장 이강호 목사) ☎(033)647-1501
주최: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정종근 목사) CTS기독교TV 일본선교회 직원예배(준비위원장 김양선 PD) 오산리교회(기남금)기도원(원장 권경환 목사) ☎(031)947-0091
주최: 연세대학교 총동문 목회자부흥협의회(총재 강영선 목사) 연산 말씀교회(김 순 목사) ☎ 010-9802-2188
일본(JAPAN) 나라타카칼신앙식기도원(원장 김태식 목사) ☎ 090-6535-9118
일본(JAPAN) 동경 우에노선교센터(정스미반 선교사) ☎ 070-8625-9118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진리)제102회 정기총회 공고

총 회 장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서 기

오진철 목사
(유성교회)

회의록서기

박민규 목사
(새생명교회)

부회의록서기

김은임 목사
(감사교회)

회 계

김정미 목사
(새예루살렘교회)

부회계

김진환 목사
(주사랑교회)

주제 : 이 총회를 하늘의 장자 총회로 되게 하소서(히 12:23절)

본 교단은 뜻을 같이할 개 교회 및 노회와 총회의 영입을 환영합니다.

● 일 시 : 2017년 9월 23일 오후 1시 30분 개회

● 장 소 : 주사랑교회(총회장 장한국 목사시무)

● 연락처 : H.P010-4436-7060, 010-8914-0969, 010-9621-9627

총회사무실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층 대림프라자 고호5(구.내손동) Tel 031)424-7612
총회장 : 장한국 목사 H.P 010-4436-7060, 서기 : 오진철 목사 H.P 010-8914-0969

요한계시록 3장 강해(29)

그날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의 옷이 없는 자라면?

〈지난호 이어서...〉

1.뜨겁게 사랑하므로 열매 맺는 삶
계시록을 연구하는 분들이 본문을 가지고 말할 때 “손을 걷어붙이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믿지를 말든지 하라.”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찬 것은 믿지 않는 것과 같이 아주 나쁜 것으로 말하는데 그러나 주님은 찬 것도 좋고 더운 것도 좋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찬 것은 요 4:14에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 되리라.”하신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생수가 샘물같이 아주 찬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똑박똑박 받아먹으면 그 사람 속에 아주 차디찬 냉수로 꽉 차게 되어 그 사람은 생수 동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눅 10:39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입만 바라보면서 똑박똑박 말씀을 받아먹었습니다. 결국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보다 신앙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서보면 마르다가 언니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서가 동생 마리아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에 폭 잠긴 스펀지를 약간만 스쳐도 물이 튀어 나오듯이, 진리의 생수로 가득 차서 포화상태(saturation)가 된 사람은 조금만 스쳐도 그에게서 진리의 생수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진리의 생수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뜨거운 것보다 찬 것을 더 위에 두고 있습니다. 금촛대 교회가 금 같은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나다. 이는 찬 것을 받은 것인데 지금 미지근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성경에서 더운 것은 뱀전 4:7-8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과 연관됩니다. 뜨겁게 사랑하므로 하나님님이 직접 대접하시는 것같이 대접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물질, 재능 등 모든 것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이 뜨거운 것입니다.

2.미지근하여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면?

라오디케아 교회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차고 뜨겁게 하다가 왜 미지근하게 되었는지 17-18절에 나옵니다. 16절 네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안에서 토해 내겠노라.

주님이 토해 내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으로 끝내겠다는 말씀처럼 오해할 수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예장진리총회 총회장



있습니다. 주님은 토해 내겠다는 말씀을 헬라어 “μῆλλω”(멜로 : ~내겠노라)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 단어를 성경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두 군데만 찾아보면 그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 4:47 갈릴리 가나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는 말씀에서 ‘거의’가 “μῆλλω”(멜로)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아들이 거의 죽어가는 상태를 말한 것이지 아직 죽지 않은 것입니다. 또 행 21:27 “그 칠일이 거의 끝날 무렵~”에서 칠일이 끝난 게 아니라 7일이 끝나가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은 주님의 입에서 아직 토하지 않은 상태로써 거의 토해낼 지경에 다다른 것을 말합니다.

지금 너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토해서 멸망시켜버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입에서 토해내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주님의 입에서 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에 그 사람이 받을 상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멸망이며 저주입니다. 그러나 나 이 뜻이 아닙니다. 금 진리로 살고 있고, 주님이 보장하고 있는 금촛대 교회의 사자에게 예비하신 복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는 영광이었습니다.

3.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며 착각하는 자의 삶은?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원인, 즉 17-18절의 문제로 인해서 미적지근해진 상태에 있으므로 주님이 토해내칠 지경에 이르렀는데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7절 네가 말하기를“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스스로“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세상에 아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구약교회라고 칭하는데 구약교회가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차지한 곳은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사 18:10).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살았던

단지파가 그 이후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사사가 18장 이후 계시록까지 단지파의 이름이 완전히 멸절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자라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은 그의 영이 영원히 살게 될 하늘나라에서 받을 몫이 하나도 없기에 비참하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네 육신이나 생각, 마음으로는 세상에 쌓아 놓은 것으로 기뻐하지만 영적으로 너의 영혼은 비참하기 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4. 내 영안이 열리고 사는 길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가련하다.”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음부의 삶을 살고 있는데, 너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다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복된 길이 아니라 멸망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기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것을 보시고,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육적인 데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가난하지 않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하늘나라에서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눈이 먼 것”은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른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연단 받는 것들은 고통스럽고 주님의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나쁜 것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눈이 먼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헐벗었다.”는 것은 자기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으로 살 때 하나님님이 주시는 상급과 영광을 받아서 행복하게 누리며 사는 것이 옷을 입는 것인데 그 옷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금촛대 교회는 순교한 자에게 주시는 흰 옷이 있습니다. 또한 144천은 순교의 신앙에 올라선 이후에 이미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가 되어 자기와 똑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는 말씀을 증거하여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의 옷인데 이 옷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으므로 주님이 세 가지 해결책을 18절에서 주십니다. 18절 네가 나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발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이 세 가지를 권고하시는데 첫 번째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라.”고 하셨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목양칼럼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11)

〈지난호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버렸다면

창세기 2:16~17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는 영생의 말씀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원수마귀에게 속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죽고 혼의 사람, 육체의 사람이 됨으로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범죄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끊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범죄한 것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떠났기 때문에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범죄한 것입니다.

먼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따 먹었고 그로 인한 결과로 영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죄란 아담이 처음 범죄한 원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행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죄로 인해 육체의 일들과 자기 의, 자기 생각과 이론과 틀이 생긴 것입니다.

1. 열거하는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열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원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나타난 자범죄만 회개함으로써 여전히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뽑지 않고 그 뿌리의 열매만을 자르기 때문입니다. 미워하고, 불평하고, 간음하고, 판단하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죄의 쓴 뿌리가 되는 원죄(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버린 죄)는 회개치 않고 원죄의 열매인 자범죄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

조영만 목사
인천시온교회
JTNTV운영이사



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렘 2:19)고 하신 같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요 고통인 것입니다.

2. 하나님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으로 인한 고통을 통해 우리가 버린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 말씀으로 돌아가(회개하여) 믿고 의지하며 순종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위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셔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버린 것과 그 말씀에서 떠나 있는 상태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우리가 버린 말씀(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통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깨닫고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갈 3:24).

이제 우리는 자범죄의 원인이 되는 원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령이었던 상태로 돌아 간 것은 아닙니다.

5. 기쁜 소식(3)

-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23~24).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죽은 자, 곧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하나되는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 죄의 뿌리였지만, 주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 회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십니다.

1.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과연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건지셨습니까?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다 씻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아직도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계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임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계로서 났음이라”(요1서 3: 9).

“대저 하나님계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요”(요1서 5: 4?5).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원수마귀를 이기고 있습니까? 죄를 이기고 있습니까? 육신을 이기고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원수마귀와 죄와 육신에게 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참입니다.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는 바로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때문입니다. 헐기 내는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주 예수를 믿는다고요? 아닙니다. 헐기 내는 그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를 씻으셨기에 부활, 승천 하셔서 만 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구세주를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하시고 체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춘복 목사

남현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2부 오전 9시30분
3부 오전 11시30분
4부 오후 2시30분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346(개봉동)

☎교회(02)2618-8877-8 당회장실(02)2684-3317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전예희 목사

신광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 (032)505-3351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오전 11시 30분
주일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예배 오후 8시 30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9-2 (현대프라자 301호)

☎070-7501-2584 핸드폰 010-5355-2584
다음카페 http://cafe.daum.net/choym.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서동기 목사

서울소망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 (02)3296-034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강대일 목사

평안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임상국 목사

천복복지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서재식 목사

풍성한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 (031)315-829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고성규 목사

다니엘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1로 52-1

☎(031)312-2613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장승현 목사

평안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오후 2:00
삼일예배 오후 7:30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북로 62-5(봉곡리 55-6)

☎ (041)356-0644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사금열 목사

예심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 밤 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십자가경기도 오후 9:00(365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4-4

H.P : 010-5225-1253

(인천)은총 기도원



원장 노은총 목사

집 회 안 내

◇ 매월 첫째 주(월-목)정기집회(세계주영광부흥사회 주관)
◇ 매월 셋째 주(월-목)정기 성회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주관)
◇ 매월 넷째 주(월-목)정기집회 매월 밤 10시기도회

주소 : 인천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H.P : 010-6327-0191, 070-7518-8195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백은성 목사

안산임마누엘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낮예배 오전 11시
주일찬양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553-5

☎ 031-406-7793 H.P : 010-2479-7793

■ 성막 영상 “구원 서정의 5단계” 15

II. 성막을 통한 구원사역의 비밀

〈지나호 이어서...〉

2) 다른 믿음의 결과

이러한 죄악들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서 저질러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이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러한 일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도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롬 1:32)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 ‘네가 보거나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약 2:22) ‘영혼 없는 몸이 죽는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 것이니라’(약 2:26)

4. 성막들과 죄

성막들은 회개를 하는 곳이다. 그곳은 죽을죄를 지은 사람이 가게 될 사형장과 같은 곳이다. 이 사형장에는 사형에 필요한 도구들이 즐비하다. 사형시킬 동물을 묶어 놓는 말뚝, 칼, 도끼, 갈고리, 넓은 판때기, 물통, 그릇 등등. 그곳은 울부짖음과 비명소리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다. 또한 그곳에는 사형틀인 벤제단이 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된다. 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다. 물론 죄 값을 치르기 위해 제물인 송아지나 양소, 양 또는 비둘기 같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불안하고 두렵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이다.

혹 개중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나는 그래도 값비싼 제물(송아지, 양)을 가지고 왔으니 하나님께서도 값싼 제물(비둘기)을 가지고 온 사람들보다는 더 우대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를 할지도 모른다.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제물의 값이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죄는 죄이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하며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얼마나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있느냐를 보시기 때문이다. ‘기록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10-23)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

송택규 박사
JTNTV 주필



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5. 어린 양의 마지막 비명

회개는 구원으로 가는 첫 관문이다. 회개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죄에 대한 증오와 잘못을 회개해야 한다. 이곳에서 ‘다음과 같은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상상해본다. 먼저 제사장이 제물을 들고 찾아온 내게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다 고백하라’고 요구한다. 어려서부터 지었던 죄들이 하나둘 떠오른다. 다른 사람의 것을 몰래 가진 것, 거짓말을 한 것, 부모를 속인 것, 동생과 싸운 것, 부모 말씀 안 들은 것,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 바로 믿지 못한 것, 아내 몰래 다른 여자 만난 것, 아내를 구박한 것, 남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것 등등…… 수많은 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나도 모르게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이 느껴지자 나는 목 놓아 통곡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기시작한다.

제사장은 내가 가져온 제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는 그 제물의 머리에 내 손을 얹게 하고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오늘 여가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자기의 죄를 다 고백했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인의 죄를 이 양에게 다 넘겨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이제 이 짐승이네 죄를 다 가져갔으니 이 짐승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가슴이 철렁한다. 아무리 짐승이지만 내 죄를 뒤집어쓰고 있는 그 흠 없고 죄 없는 어린 양을 어떻게 내손으로 죽인단 말인가. 나는 그 어린양의 눈망울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제사장은 시퍼런 칼을 주며, ‘어서 죽이라’고 재촉한다. 나는 정말 두렵고 떨려 죄 없는 어린 양을 죽일 수가 없었다. 빨라 결단을 못하는 나를 보고 제사장은 ‘그렇다면 네가 죽겠느냐?’며 다그친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큰 숨을 몰아쉬 다음 이를 악물고 칼로 어린 양의 목을 찔렀다.

어린 양의 비명소리와 함께 뜨거운 피

가 뿜어져 나왔다. 내 손과 옷에 피가 뒤었다. 나는 혐기증으로 비틀거렸다. 내가 흠 없는 양을 죽였다! 내가 살자고 그 어린 양을 죽였다! 죄책감과 죄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압송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소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약 4:12)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그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계 22:14)

벤제단-제물 드림-성령불로 태움

(십자가 형틀) (십자가에 못박힘-대속) (십자가 보혈, 칭의)벤제단의 구조와 의미 구조: 흠을 파낸 1.5m 높이의 아궁이 위에 조각목으로 틀을 짜고, 그 위에 돛을 입힌 벤제단이 놓여 있다. 크기는 가로세로 5규빗X5규빗(2.5mx2.5m), 높이 3규빗(2.5mX2.5m) 정도로 추정한다. 벤제단 네 귀퉁이에는 조각목으로 만든 구원을 상징하는 뿔이 있는데 돛으로 들렸다. 바닥은 놋그물로 되어 있다.

의미: ① 돛뿔을 장대 위에 높이 달 듯, 돛 벤제단을 높은 곳에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걸어 올라가서 제물을 태우게 했다. 이는 나무 위에 높이 달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② 대속과 칭의의 장소를 의미한다. ③ 변하지 않는 돛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을 상징한다. 내용: ① 제사법을 통한 구원의 비밀 ② 벤제단과 십자가 ③ 십자가 형틀과 산제물 ④ 대속적 죽음과 자아의 죽음 ※ 이 과정을 통하여 실제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된다.

제3단계: 벤제단 단계(레 1:3-7; 17:11)

1. 성막과 제사법

구약 성막에서 제사법을 모르고는 성막을 논할 수 없을 만큼 제사법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막의 핵심은 제사이고, 제사는 산제물이나 자신(짐승으로 대신함)을 하나님께 드려 죄 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구약의 성막은 하늘 성소의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며 오늘날 교회의 모형으로 예배의 기본적 요소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와 예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의 성막과 제사법을 이해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大韓民國 의 未來를 위한 教育의 改革을 위한 研究 (13)

(韓國近代教育의 始作과 發達의 歷史的 考察)(1884년-1945년)

〈지나호 이어서...〉

총 위원은 28명인데 일본인25명 한국인3명은 친일파 이완용 외 2명이다. 애초부터 한국인들의 교육적 의미는 담아낼 의지가 없는 모임이며 저들의 식민화 정책을 위하여 만들어진 위원회이다. 1922.2월 신 교육령이 발표된다. 가장 중요한 사항을 열거한다.

가) 유치원, 맹아학교, 기타보통학교와 비슷한 각종학교는 보통학교에 부설할 수 있다. 나) 조선어 및 한문을 나누어 조선어를 정 과목으로 하고 한문을 선택과목으로 하였다. 다) 역사와 지리를 정 과목으로 한다. 라)수업료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1개월 이내로 받게 한다.

조선어를 가르치고 쓰는 것을 허락한 것은 참으로 다행인 것 같으나 그 뒤에는 조선인들과 선교사들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가 있다. 역사는 조선의 찬란한 역사와 민족의 우수성을 알려주기보다,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주며 백성은 가난한데 탐관오리들의 착취와 당과 싸움으로 분열되고 힘없는 나라가 되어 강대국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조선론을 자기들이 거둬주고 있다는 식의 역사다.

그리고 지금 강대국이 된 일본의 우월성을 가르치는 역사다. “사이토”의 문화정책은 고도의 계산된 문화와 역사의 왜곡을 통한 조선국민의 정체성을 식민화 하는 것이다. 3.1운동의 영향으로 일본의 정책이 바뀌는데 어려서부터 일본의 노예로 살아가게 만드는 교육을 실시하고 출세하려거든 일본사람에게 개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것 이었다.

4) 일제의 탄압에 직면하는 사립초등학교와 학생들의 항일 운동

3.1운동이후 동맹 휴학이 잇달아 일어났다. 일본정부는 긴장한다. 3.1운동으로 고양된 학생운동에 대한 의식이 학생들에게 다시금 일제에 저항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냈다. 특히 주목할일은 중등학생으로 구성된 애국단 이었다. 단장에 휘문 고보4학년 박봉선(20세),부단장겸 통신 출판부장 기동창년학교 이종상(19세), 서무부장 이화여고보 임효정(18세),교재부장삼일학교 교사 차인재(22세), 재무부장 이화여고보 최문순(17세), 구제부장 경성여고보이경선(18세)이었다.

이들은 주로 상해 임시정부의 김보란과 연결하여 상해에서 발행하는 독립신문, 대한민보, 애국가, 경교문 등을 가져다 비밀리에 배포 하



김창룡 목사
칼럼리스트 金昌龍 牧師
(하나님미디어인신교회)

는일 이었다. 그들이 발각되어 불들리므로 조직이 드러나게 되었다. 3.1운동은 어린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교사들은 그들에게 애국애족을 가르치고 지도했다.

1926 조선총독부에 새로운 총독 “아베니시”가부임한다. 당시는 세계적인 경제 공황으로 우리나라도 아주 힘든 상황에 접어들다. 극심한 경제적인 압박, 농촌의 파배, 삼급학교에 진학할 여건이 되지않아 학생들이 점점 줄어든다. 이 시대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급속히 파고든다. 특히 지식인사회에 급속히 퍼져갔다. 공산주의가 급속히 발흥하자 일제는 이를 소멸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연합전선은 전략적인 차원이고공공적인 목적은 공산 혁명이다. 이들이 학원에 침투하여 학생들을 동맹 휴학을 일으키자 일제는 긴장하여 아베니시 총독은 조선인들의 생활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사상이 자유주위 민족주의로 나가는 것을 염려하였다.

그래서 조선인들에게 생활을 개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실용주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학생들의 사상난속에 힘을 모았다. 그러기위해 임시교육심의위원회를 열어 배포했다. 조선인의 안영을 기하고 다수민족의 자질을 높이며 산업을 개발하고 문화의 진전을 촉진하는데 이따며 아직도 면에 초등학교가 없는 곳 이었다며 전국에 초등학교를 개설하여 초등교육을 든든히 해야 한다며 면마다 공립학교를 개설했다. 이 정책은 어려서부터 일본인을 만들고 사상교육을 시키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한국의 부모들과 학생들은 일본이 세운 학교에서 일본화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다. 어쩔 수없이 일제가 세운 학교에 다니지만 일본교사와 일본학생들의 태도에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이것이 분출된 것이 광주학생운동이다. 전남 광주의 공립학교에서 한국학생이 일본학생에게 맞아 살해당했다는

소문이 돌자 각학교가 동맹휴학을 하여 전국적으로 194개 학교가 참여하였다. 이주에 초등학교54개교가 포함되어있다 .특히 이 사건은 공립학교학생들이 앞장섰다는 것이다. 일본인교사와 일본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우리학생들과 부모 국민들의 마음에 민족정신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다.

5월제 말 초등교육의 정책

1931년 부임한 “우가끼”총독은 “교육은 곳 생활이다.”라는 표어를 앞세워 한국인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 해주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가난한 한국농촌을 살리려는 취지는 다소 그럴듯한 표어지만 그들은 식민지 경영을 통한 자국의 경제난관을 풀어가려는 속셈이었다. 우가끼는 세계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자국의 경제를 살리려고 한국의 식민지경제를 부흥시키고 소비시장을 확장하려했다. 일본 기업들을 한국에 진출케 하였다 그러나 일본 기업인들은 한국노동력이 질이 낮고 의 사소통이 잘 안된다고 진술이 어려움을 토로하자. 우가끼는 이를 위해 조선의보통교육수준의 노동력을 다수 확보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정책을 바꾸어 추진하는데 각 초등학교부터 일본어를 교육시키고 국민의 수준을 위한교육이아니라 일본가점의 노동력을 위한 교육정책이다. 또 중요한 것은 점점 고립되어가는 일본의 군사력 동원에 한국인을 동원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일본인을 만들어 의무교육, 의무병역을 치루게 할 계획이 있었다. 직업교육의 갈화 각각의 특성에 맞는 기술교육을 시행 면마다 설립한 공립학교에서 농사 양장 축산 수산 지역마다 특성화된 기술을 가르쳤다.

1936 1면1학교 가 개설되었으나 취학을 이 25%밖에 되지못했다. 1928년 영국이 인도에 세운 학교는 적령 입학률이27%, 1931년 필리핀 54% 국제적 추세에도 못 미치는 수준 이었다 총독부는 1936 입학지원자 전원을 취학시키기로 하고 10년 동안 계획을 세워 취학적령60%를 목표로 하였다. 이런 목표로 해마다 7만명 정도를 예정하고 763,000명을 더 수용 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면에 2개교를 하고 이미 하고 있는 학교는 증설하는 계획을 세운다. 문제는 학교와 학생이 늘어나니 교사가 부족했다. 〈다음호에 계속〉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담임 정기환 목사

주일 예배 안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75번길 30-5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김선우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일 7시, 금요일 저녁 7시
화요일 2시 집회

인천시 부평구 청천1동 48-161
H.P 010-3499-2441

대한예수교 장로회 흥성제일교회



담임 오종설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일예 오후 7시 30분

충남 흥성군 흥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천시온교회



담임 배영자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새벽예배 6시
수요일예 저녁 7시30분
금요일예 저녁 7시30분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24길 11(2층)시흥동
H.P 010-9600-5028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생명교회



담임 박민규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00
수요일예 저녁 7시00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236-4
☎(02)385-2571/010-9621-9627

대한예수교 장로회 베엘중앙교회



담임 이혜진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일예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032)667-7147 H.P 010-3287-15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능력교회



담임 최순란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오전 11시
주일오후 7시
수요일 오후 7시
새벽기도 오전 5시3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177 지하 1층(안양동)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박순중 목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 ~3급자 환영)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033)641-0687 H.P 010-7405-9191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담임 최철현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은교회



담임 박연자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저녁예배 오후 8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주소 : 인천 남구 주안 4동 1483-4 (3층)
H.P 010-6237-9755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박완근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7시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 018-320-1507

조예 교정선교회



담임 유순옥 목사

조예/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속(직업훈련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89번길 9-1 102호(안양동)
☎(070)8632-6993 H.P 010-3035-5704

광복 제72주년 기념

8.15경축행사, 이제 우리의 소원은“통일”

조국 광복 제72주년 기념 광복절 경축 기념행사가 지역별로 열리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고국의 안녕과 통일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

먼저 남가주교협(회장 김재을 목사)과 로스앤젤레스한인회(회장 로라 진)가 공동 주관한 경축음악회가 12일(토) 오후 LA한인타운 소재 마가교회(담임 채동선 전도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경축 음악회로 나뉘어 진행된 후 행운권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했다. 1부 예배에서 강부용 목사(남가주교협 상임이사)는 “해방을 주신 하나님”(갈 5:1) 제목의 설교를 통해 그 당시의 해방의 감격을 나눴다. 2부 경축음악회에서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테너 오위영, 소프라노 황혜경, 그리고 조미자 목사(본사 한국 지사장), 예루살렘성가단, 코랄레움 선교합창단 등이 찬양으로 다 함께 광복을 경축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한인회(회장 로라 진)가 주최하고 LA 총영사관(이기철 총영사)이 특별후원한 광복절 경축식이 동양선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에서 15일 오전 열렸다. 이 경축식은 식전축하공연, 경축



▲코행가 초등학교 합창단이 태극기를 흔들며 광복절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식, 합일독립운동 주재영화강연 순서로 진행됐다.

축하공연은 코행가 초등학교 합창단(Cahuenga Elementary Chorus)이 무대에 등단, 각자의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국가” 등 3곡을 연주했고, 끝곡인 “우리의 소원은 통

일”은 참석자들이 다함께 합창하며,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이기철 총영사가 대독한 대통령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산가족상봉과 고향방문의 조속한 호응”을 북한에 촉구했다. 로라 진 주했고, 끝곡인 “우리의 소원은 통

일”은 참석자들이 다함께 합창하며,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이기철 총영사가 대독한 대통령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산가족상봉과 고향방문의 조속한 호응”을 북한에 촉구했다. 로라 진 주했고, 끝곡인 “우리의 소원은 통

일”은 참석자들이 다함께 합창하며,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을 보고,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희망과 기쁨의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기념행사는 1부 기념 예배, 2부 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예배는 사회 최국현 목사, 기도 차관희 목사(중부교협부회장), 설교 김은철 목사(플러신대 교수), 헌금기도 현에스터 목사(중부교협부회장), 축도 김영대 목사(중부교협 증경회장)순으로 드러졌다.

2부 콘서트는 이아모스 목사의 진행으로 Moo Star TaeKwonDo 수련자들의 태권도 종합시범으로 무대를 열었다. 이어 그레이스 리 자매의 “주는 나의 힘이요”, 김충만 전도사 “나 가진 것 없어도”, Seeds of Worship팀의 “Salteens Dance”, 서소희 전도사 “나의 죄를 씻기는”, 이정열 자매 “하늘 소망”, 오렌지카운티 코리아매스 터코럴 “신고산 타령”, Mani Monday의 재즈 연주 후에 방상용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신정현 기자

다시 예배 강단에 선 임현수 목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종신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31개월간 북한에 억류되어 왔던 임현수 목사(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가 13일 주일예배에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강단에 올랐다. 임 목사는 고난과 시련의 억류 생활을 담담하게 말하는 여유를 보이며 다시 성도들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 현실이 믿기지 않는 듯 눈시울을 붉혔다.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다시 만난 감격을 함께 나누며 박수와 환호성으로 답했다. 임현수 목사는 “긴 고통의 시간은 오히려 주님과 나만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며 “그동안 자신을 위해 기도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사를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임 목사는 “북한의 겨울은 참으로 추웠습니다. 종신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고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너



▲ 8월 13일(중)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한 임현수 목사.

무 추워서 양말을 네 겹이나 신었 습니다. 그래도 발이 너무 시려 비닐봉지로 양말 위를 다시 감쌌습 니다. 그러나 발가락 10개가 모두 동상에 걸렸습니다”며 육체적으로 도 얼마나 혹독한 시련을 겪었는

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 의 삶은 “외로움과의 싸움이었다”고 말한 후 그러나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의 연단이 었다”고 덧붙였다.

이영인 기자

미주 성시화운동 리더십세미나 개최

북한과 중국의 환상에서 깨라

미주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송정명 목사)가 주최하는 크리스천리더십 아카데미 세미나가 지난 14일, 글렌데일 라크레센터 소재 나섬중앙교회(담임 이정도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외정책 검토” 주제로 열렸으며, 참석자들은 세미나 후에 구국 기도회를 가졌다.

동 세미나는 북한의 핵개발과 증가되는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북한의 위협과 미국의 대외정책을 바로 알리고, 미주동포들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위해 개최됐다.

세미나 강사는 김경준 박사(전 미국 군사무기 전문학자, 현 예수 사랑교회 담임목사)가 나섰다. 김 박사는 목사가 되기 전, 미국 보안 회사 ICBM 무기개발 부서와 미해 군 연구소에서 군사용 레이더 개발과 전략 연구소 선임연구원과 군사무기 전문가로 일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박사는, “미국의 대외정책은 바뀔 수 있는 현실임을 우리는 자 각해야 한다. 중국, 러시아와 북한의 동지회식과 위협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다. 한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은 세계의 도전과 변화에 위기의식을 갖고 대비해야



▲ 김경준 박사가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한다”고 강조했다.

구국기도회는 이성우 목사(본부장)의 사회로, “조국을 위한 기도”/헬렌 김 회장(남가주여성성목사회), “북한을 위한 기도”/양수영 목사(LA동지방 감리사), “미국을 위한 기도”/샘 신 부회장(남가주한인목사회), “성시화운동을 위한 기도”/최대영 장로(미주 성시화운동 전 이사장)의 기도제목을 놓고, 참석자들의 통성기도와 함께, 대표 연속 기도로 마무리 됐다. 특별히, 성시화운동 홍보대사인 노현경 선교사의 특송, 찬송가 595장 “나 말은 복분은”의 감동 있는 찬양 가사의 메시지는 참석자들의 헌신과

결단을 촉구하며, 조국과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의 간절한 열기를 더해 주었다.

동 세미나는 1부 경건회, 2부 세미나, 3부 구국기도회 순서로 마쳐졌다. 경건회는 한기형 목사(미주 성시화운동 상임회장)의 진행으로, 환영인사(송정명 목사), 시작대표 기도 백은하 장로(홀리클럽회장), 특송 노현경 선교사가 각각 맡았다.

2부 세미나는 이성도 목사의 사회로 강연이 있었고, 3부 구국 기도회 후 질의응답과 대화 순서는 저녁식사 시간으로 이어졌다. 신정현 기자

중부교협 주최, 광복절 축하 콘서트 열어

미래의 꿈나무에 희망 심어요

광복절 축하 음악 콘서트가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회장 최국현 목사) 주최로 지난 13일(주일) 세리토스선교교회(담임 방상용 목사)에서 열렸다. 중부교협은 20회째로 개최하는 올해 광복72주년 행사를 온 가족이 함께 축하하는 콘서트형식으로 개최했다. 특별히, 조국 광복의 감격을 점차로 잊고 사는 1세대와, 민족 역사의 교훈을 알지 못하는 2세들을 위해, 광복의 기쁨과 역사를 온 가족이 축하하는 초대의 현장으로 무대를 꾸었다.

이날 설교를 맡은 김은철 목사(플러신대 교수)는 시 69:30-31 성경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황소와 재물을 드리는 물질 보디, 순종과 찬양의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강조했다. 최국현 중부교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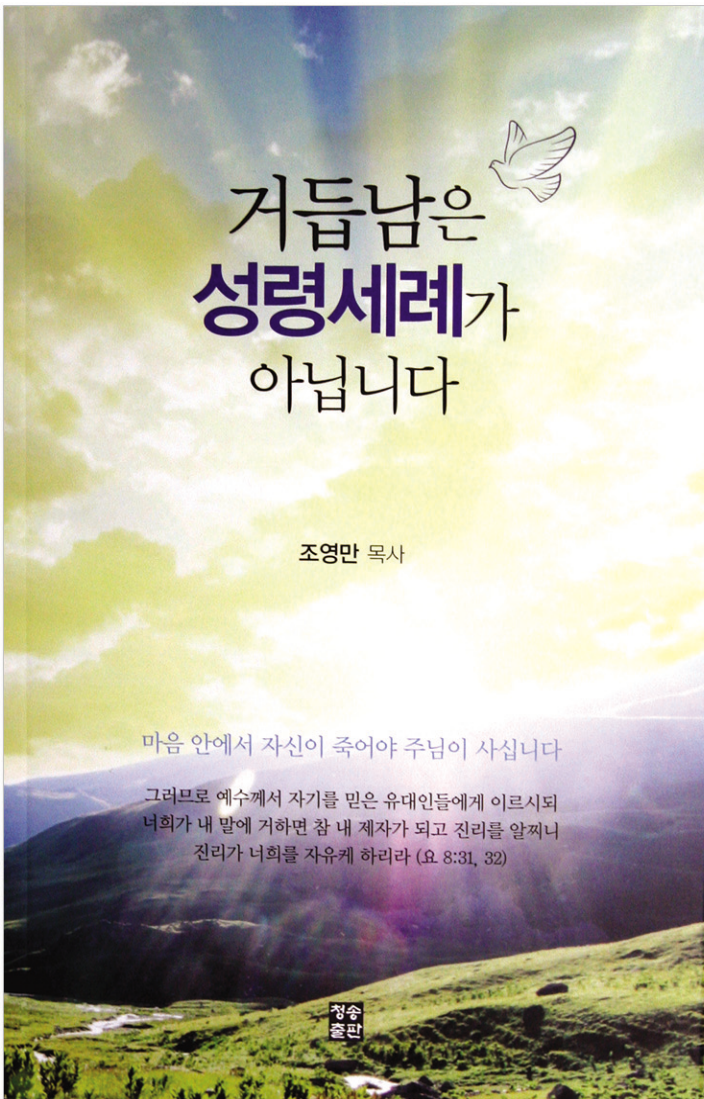
▲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의 광복절 축하 기념 공연모습.

회장은 “국악과 재즈, 힙합과 전 통음악 등, 남녀노소가 모두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장르로 기쁨의 콘서트로 준비했다.

또한 조국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가와 복음송가 곡을 무대에 올렸다. 참석한 1세대들이 청소년들의 밝고 힘찬 공연

거듭남을 성령세례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거듭남)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이른 비(거듭남)를 늦은 비(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홍해를 건너는 것(거듭남)을 요단을 건너는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거듭남)을 자성소에 들어가는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어린 아이(거듭남)를 장성한 자(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거듭남)을 신령한 자들(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중생의 씻음(거듭남)을 성령의 새롭게 하심(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믿음(거듭남)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은혜(거듭남)를 은혜위에 은혜(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영광(거듭남)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너희와 함께 거하심(거듭남)을 너희 속에 계시겠음(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새 영(거듭남)을 새 마음(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구원의 속옷(거듭남)을 의의 겹옷(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아브라함이 85세에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먹고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이로 여긴 것(거듭남)을 99세에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받은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거듭남)을 제자들이 주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다가 오순절에 약속하신 것을 받은 것(성령세례)과 같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죽을 때까지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일에 실패함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첫 열매로 들림 받을 수 없습니다.



저자 조영만

-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
- 총회신학교
- 국제신학대학원(M.Div, M.A)
- 인천 종합건설본부 신우회 지도목사
- 인천 연수구청 신우회 지도목사
- 사)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교단 총무
- JTNTV/방송, 지저스타임즈 운영이사
- CTS 경인방송 운영이사
- 현재 인천시온장로교회 담임목사

책 주문 방법

주문자 성명, 입금자 성명, 받으실 주소, 신청 권수,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주세요!

- 연락처 : 010-5355-2584
- 이메일 : choym7777@hanmail.net
- 예금주 : 시온교회
- 신한은행 : 110-029-475990
- 책가격 : 15,000원
- 다음카페 : 시온의 딸들에게 예복을
http://cafe.daum.net/choym.com

대화를 통한 북 핵 폐기 망상을 버려야

김정은 이병 구하기 대화보다 침수작전 정권교체가 비핵화해법

6.25남침 전범집단 천안함폭침 테러범, 서른세 살 꽃내기 도살자 김정은 3대 세습살인폭압독재 체제가 겹으로 보아서는 매우 견고하게 비칠지도 모르지만 김정은 독재 권력에는 두 가지 제약이 존재 해 있다는 사실을 간파해선 안 된다. 그 첫 번째가 당규약과 헌법 그리고 '당 유일체제장화 10대원칙'에 명시 돼 있는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김일성 김정일 유훈을 관철하고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화(적화통일)'해야 한다는 골대를 쓰고 그 두 번째가 낱조 된 허구적 '백두혈통'에 코가 껴인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후견인이자 섭정(攝政)역 고 모부를 도둑하고 신망 있는 군부 실세 인민무력 부장을 재관 없이 처형했는가하면, 이북형용 독살하는 잔혹함을 드러내 보였다는 사실을 두고 김정은 체제가 정착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권력기반이 취약하여 극단적 공포정치(恐怖政治)로 겨우 지탱하고 있다는 상반된 분석에 보다 힘이 실리고 있다.

조작이든 사실이든 소위 반당반혁명종파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내외적 도전과 위협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도 남는 것이다.

김정은이 핵에 집착하는 1차적 이유는 내외의 도전과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고 궁극적으로는 무력적화통일 달성을 위해 핵을 미군철수의 지렛대로 삼아 남북대결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기위한 수단으로서 김일성 김정일 유훈관철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핵무장보선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김정일 사후에 북한은 노동당규약(2012.4.12)을 개정, <조선노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당, 주체혁명의 혁명적당>이라고 규정 정당국가가 아니라 사교적(邪敎的)불법무장집단이라는 본질을 드러내면서 개정헌법(2012.4.14)서문에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보유국'임을 천명하는 등 핵에 관한 집념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게 엄연한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북한노동당규약이나 헌법보다 상위 규범이라는 '유일사상10대원칙' 서문에 "수령인 과 장군님의 영도에 의하여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군사력과 튼튼한 자립 경제를 갖추게 됐다."고 천명한 사실에 대해 각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노동당 10대원칙 규정에 따라 노동당 3월 전원회의(2014.3.31)에서 '경제건설과 핵무장건설 병진노선'을 공식채택한데 이어서 7차당대회 결정서(2016.5.8)에서는 '동방에 핵 대국'을 선포했다는 것은 핵 불포기(不拋棄)의지를 한층 더 확고히 한 것이다.

이로써 북한 핵은 북한의 존망이 걸린 사활적 문제로서 설사 '최고존엄'이라는 김정은일자리도 임의로 포기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핵 폐기문제는 최소한 노동당정치국 상무위

원회, 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와 정부국의 내부적 합의와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김정은이 함부로 독단할 사안도 아님이 분명하다 하겠다. 만약 김정은이 독단적으로 핵 폐기를 결정한다면 이는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될 것이며, 북의 태양 김일성과 광명성(光明星) 김정일에 대한 신성모독 대죄(大罪)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핵 놓는 순간 '백두혈통'의 존엄을 잃고 '죽음'과 맞서야 한다는 사실 알고 있는 김정은 집단을 상대로 대화를 통해서 핵을 포기토록 한다는 것은 어설론 망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 핵을 전범 폐기시킬 유일한 해법은 국제정치외교 및 경제적 제재와 압박강화로 숨통을 조이고, 북쪽이나 침수작전 같은 군사적 수단으로 김정은 체제를 무너트리고 보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정권이 들어서도록 하는 레전젠지(regime change)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대화에 대한 집념을 못 버린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북한과 커넥션이 작동, 6.15의 위헌성과 10.4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DI, 盧의 환상적 주술(呪術)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실패의 전철을 밟으려는 것이며, 이는 '퍼주기'를 재개 하여 파멸에 직면한 '김정은 일병 구하기'에 나서는 동시에 김정은이 핵 및 로켓 프로그램 완성에 필요한 돈과 시간을 보장해 주려는 이적.반역성(利敵.反逆性)행태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재인정권의 대화타령에 대하여 북한태권도시법단을 인솔해서 입국한 북한 IOC 위원 장웅이란 자가 "동계올림픽 참가요청은 천진난만한 짓"이라고 콧방귀를 끼었는가하면, 핵동결장상에 조평통이 "핵문제는 미국과의 문제일 뿐 남조선이 참견할 문제가 아니다.(2017.6.19)"라고 일축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할까?

김정은이 문재인 정권에 요구하는 것은 2,000조원 지원, 개성공단 2,000만평 확장, 따위 사탕발림 구호나 대화타령이 아니라 "닥치고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 미군철수, 대북심리전종단 연방제 적화통일"에 나서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게 약점을 잡히고 코를 쎈 게 아니라면,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한가롭게 대화타령에 매달린다는 것 자체가 상환인식에 대한 무지와 사태해결에 대한 무능을 뜻하며, 국제질서에 역행하고 인류 평화와 정의를 거역함으로써 남북공멸이라는 재앙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정치에는 '실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안보에는 '연습'이 있을 수 없다.



백승목 대기자
논설위원

심은 다시 일하기 위한 조용한 준비입니다

먼 길을 단숨에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생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사명은 삶에서의 순종입니다. 영적 삶에 대한 조용한 준비는 힘을 더하는 또 하나의 사역입니다.

어느새 찾아온 100세의 삶, 그것은 얼마나 힘이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가끔은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의 오만함이 힘을 부끄럽게 합니다. 평생묵회를 꿈꾸며 원로목사님들을 만납니다. 오직 주님의 복을 하나로 일생을 바친 위대한 전도자의 주름진 손을 잡아봅니다. 아직도 따뜻한 열정이 가슴으로 흐릅니다.

말도 느리고 발음도 꼬이지만 하나님의 숨결 같은 호흡입니다. 서로 함께하는 친구들과의 조용한 만남도 믿음과 동행하는 자리입니다. 비오는 날의 우산처럼 모두가 필요한 동역자들입니다. 아내도 아프고 누가 누구를 보살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늘을 보고 살았던 존엄처럼 거룩한 자리를 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은퇴하신 교계의 원로목회자들 존경과 명예로 예우해야 합니다. 그 분들

이 다시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드려야 합니다. 흔히"목회는 은퇴해도 사역에는 은퇴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회에서도 직장을 은퇴하면 자신의 전공과 경험을 살려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원로라는 단어는 호칭의 문제를 떠나 더 큰 명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대 문명의 황혼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토머스 스탠스 엘리엇의 '문명 비판적 세계관' 만큼이나 내 아픔에 대한 정리는 바로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흘러간 과거 속에도 손을 잡고 함께 웃고 울었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향한 죽음의 순종도 떠오릅니다. 원로목사님들의 현재는 그렇게 이루어진 힘입니다. 이제 당당한 걸음을 걸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평생목회로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역사는 현재를 지배합니다. 몰락한 제국의 역사가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볼테르의 독설이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이르면 패륜이 됩니다. 그에게 따뜻한 손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영성깊은 힘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결손과 절제는 사라지고 과도한 확신이 남은 상처입니다.

이제 원로목회자님들의 힘을 마련하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혼에 지는 해를 바라보며 다시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상상하는 거룩한 의지를 놓았으면 합니다. '종로에 나오면 목자가떼가 있어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분들의 더 큰 힘을 위해 우리는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일을 꿈꾸고 준비하는 노병의 미소는 내일의 우리입니다.



이주태 장로
한국기독교교원목회자재단 대표회장

<8·15광복절>

35년간 일제의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광복 72주년을 맞이하여 두려운 일을 두려워한다.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모국(母國)을 빼앗겨서 울분과 절망과 비극의 날들, 35년 만에 다시 찾은 조국의 광복 72주년을 맞이했다. 국가를 잃은 것은 설움이냐 비극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그로인하여 국가의 역사는 뒤늦게 썼으며, 또한 그 상처가 아물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국가의 주권을 빼앗긴 것은 국민들의 희망과 미래를 빼앗긴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 두려운 일이다. 역사의 순환(순환론적 역사)을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나 슬픈 역사를 잊어버리는 일은 가해자들로 하여금 비극적 역사를 다시 맞이해 줄 것이다. 나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 또한 두려운 일이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일제의 만행을 용서할 때가 되었다. 용서는 보복보다 더 큰 값음이다. 그러나 잊지는 말아야 한다. 식민지배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로 강하게 했는가를 보

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1910년 경술년의 국치를 다시 상기해야 한다. 어찌 나라를 그렇게 거저 바친다는 말인가?

슬픈 민족의 과거사를 정파(政派)의 이해요건으로 사용하는 정치는 아직도 국민들을 계도의 대상이거나 호도할 수 있는 어리석



은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거부해야 한다. 위안부문제도 정파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새 정부는 국가가

아픈 상처를 안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보상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행여 국가적 에너지들을 분란을 조장하는 일에 쏟지 않게 해야 한다.

광복 72주년이 된 오늘 전혀 다른 국제적인 심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북한의 핵과 한미,일 삼국의 대응이다. 이 도전에 대한 응전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조국 존폐의 문제가 아닐 수 없는 두려운 숙제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다.

72년 전에 광복의 일이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듯이,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응답이었다고 믿게 되듯이, 현재도 국민적인 지혜와 하나 된 힘이 필요하지만, 백척간두의 북한의 핵위협 사태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탁드려야 할 것이

다. 이제 한국교회, 두려운 일을 앞에 두고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회개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신입생 모집요강

김창숙 목사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술원 학점학위의 졸업장 수여함.

◆ 과점수로 후 세계로신학학술원을 통해 연장수업으로 (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과정 : 찬양, 율동, 워십, 한국무용

수업요일 : 매주 월, 수, 금

장소 : 꾸미오리선교센터(경기도 양주시 고암동182-3)

문의 : HP 010-4137-0796 (김창숙 목사)

세계로신학학술원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에녹부흥신학 신학생 모집

설립자 / 대표	이사장	학장 / 이사	이 사	이 사	사무국장
박영민 목사	이호성 목사	임순학 박사	정기남 목사	김영숙 집사	김영애 전도사

교 수 진

박영민 교수, 임순학 교수, 김진우 교수, 박형모 교수, 심기식 교수, 박경자 교수, 김성기 교수, 최동준 교수, 김명옥 교수, 모성춘 교수, 윤동훈 교수, 이경우 교수, 김정우 교수, 윤주만 교수, 최혜숙 교수, 김영진 교수, 제갈요한 교수, 한영실 교수, 이환호 교수, 주찬양 교수

과정	수업일	학제
기독예배 과정	매주 목, 금, 토.	2년 6학기
신학부 과정	매주 목, 금, 토.	3년 9학기
목회대학원 과정	매주(저녁) 월, 화.	2년 6학기
신학연구원 과정	매주(저녁) 월, 화.	3년 9학기
학술원	매주 토.	1년 3학기
찬양치유교실	매주 목.	2년 6학기

※과정 통신으로 교육할 수 있음. 교단 가입 현황

저희에녹부흥신학은
 *교육은 방학 없이 1년 3학기제로 운영합니다.
 *정통 장로교 신학을 바탕으로 하나님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의 교육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예북)에서 소정의 과정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북총회는 (사)한국기독교교수교단협의회 정식 회원 교단이며, 본 협의회로부터 신학 교육을 인증 받았습니.
 *총회장 박영민 목사는 본 협의회 (사)한국기독교교수교단협의회 공동회장 및 신학위원회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부흥사 및 영성 사역자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분은 "국제예북부흥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장소: (인천)등불교회.

·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능해길 5(구, 송의1동 441-45)

· 문의: (사무국장)010-6778-0651, (대표)010-2080-0651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표어 :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2017 동어

- 선교하는 교회
- 사랑하는 교회
- 부흥하는 교회

당회장 정 대 성 목사

예/배/시/간/안/내

- 매일새벽예배 : 새벽 5:30
- 주일 낮 예배 : 오전 11:00
- 주일찬양예배 : 오후 2:00
- 저녁 기도회 : 매일 오후 8:00
- 토요직분자교육 : 오후 7:00
- 청년 / 학생부 : 통합예배
- 수요 예배 : 오후 7:30
- 금요철야예배 : 금요일 오후 7:30

경기도 김포시 운곡로9번길 15, (장기동 131) ☎ 010-6418-3468

http://www.mokpojuan.com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담임목사 모상련

섬기는분

담 임 : 모상련 목사

부 목 사 : 모정선 김길현 박민수 모성춘 (은퇴)정정화

협동 목사 : 추정희 진안순 윤영옥

심방전도사 : 파송전도사 : 안재선(선교지베트남)

파송전도사 : 김은미(선교지베트남) 안윤기(선교지캄보디아)

파송전도사 : 김진희(선교지캄보디아) 김미경(선교지적도나)

교육전도사 : 변베트남신학교교육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주안교회

주소 : 58714 전라남도 목포시청호로 159(산정동)

☎(061)272-4908, 278-0692 팩스:(061)278-0693

아름다운 우리 땅 독도와 울릉도에 올려 퍼진 “우리나라 만세!”



CTS 독도 기도원정대 나라사랑 부흥집회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우리나라 만세!”대한민국 영토의 최동단 독도에서 애국가가 뜨겁게 울려 퍼졌다.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가 광복절 72주년을 맞아 개최한 ‘2017 CTS 독도 기도원정대 나라사랑 부흥집회’의 참가자 500여명은 애국가를 부르며 72년 전 일본식민 제국주의로부터 우리 민족의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했다.

일정의 둘째 날 이른 아침 참가자들을 실은 첫 배가 설렘을 안고 독도를 향해 출발했지만 3m의 높은 파도가 이는 등 기상 상황이 녹록치는 않았다. 광복절을 즈음해 많은 배가 독도 입도에 도전했지만 높은 파도로 회항하거나 아예 출항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1년에 60일 정도만 입도가 가능하다는 독도, 드디어 점안에 성공한 순간 ‘2017 CTS 독도 기도원정대’ 참가자들은 미리 준비해간 대형 태극기를 펼쳐 들고 하나님께 영

광을 돌렸다.

울릉도를 찾은 기도원정대는 거북바위와 예림원, 문자조각공원 등 아름다운 우리 섬 울릉도의 명소들을 돌아보며 여행의 시간을 가졌다. 또 1909년 울릉도에 처음으로 세워진 나리교회를 방문해 울릉도의 선교 역사를 되새기고, 울릉제일교회에서 매일 새벽기도회를 통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을 다짐했다.

매일 저녁 울릉한마음회관에서 열린 특별 집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부흥 대성회’로 진행됐다. 울릉기독교연합회 부회장 김신영 목사(울릉제일교회)가 인도한 첫날 집회에서는 이번 ‘2017 CTS 독도 기도원정대 나라사랑 부흥집회’의 주장사인 광은교회 김한배 목사가 말씀을 선포했다. 김한배 목사는 “일본이 우리 땅 독도를 더 이상 넘보지 못하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길” 간구했다.

대성회에는 기독교계 안팎의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울릉군 최수일 군수가 울릉도를 방문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환영인사를 전하고, 울릉군기독교연합회 회장 정지호 목사(도동침례교회)가 대성회 개회를 축하했으며, CTS 김관상 사장이 울릉도 도민들과 기독교계의 환영에 답사를 전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해에 마련된 기도원정대’를 통해 모두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경과 성령으로 돌아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길’, ‘한국교회가 교회연합과 일치운동을 통해 하나가 돼 세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세계교회를 섬기길’, ‘동북아의 평화와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새롭게 결단하길’, ‘국가적인 위기상황과 사회 갈등, 동성애 문제와 이슬람 문화의 전방위적 확산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민족과 백성

들에게 희망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했다.

한편 CTS는 울릉도에서 진행되는 ‘2017 CTS 독도 기도원정대 나라사랑 부흥집회’의 생생한 감동을 더 많은 시청자들과 나누고자 <CTS 뉴스>를 통해 현장을 생중계로 연결하기도 했다. 광복절 당일인 8월 15일(화)부터 17일(목)까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와 울릉도를 방문해 기도한 ‘2017 CTS 독도 기도원정대 나라사랑 부흥집회’는 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 모여 기도했던 기독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CT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CTS는 지난 2016년 ‘CTS 독도 기도원정대’와 ‘CTS 순교자의 길(전라남도 기독교 순교유적지)’, 올해 3월 ‘CTS 제주도 기도원정대’와 6월 ‘CTS 백령도 기도원정대’에 이어 5번째 국토 탐방 기도 행사를 주최했다.

CTS 감경철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송고한 회성을 하신 분들을 기리는 광복절에 민족의 섬 독도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인 ‘우리 땅 독도 기도원정대’가 개최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믿는다”며 “외로운 섬 독도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사역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2017 CTS 독도 기도원정대’는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해 ‘강릉항’, ‘목호항’, ‘후포항’, ‘포항항’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선편을 이용해 울릉도로 출발했으며, 독도에 입도한 모든 참석자에게는 ‘독도 명예 주민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16세기 유럽에서 로마교회를 중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와, 사단법인 세계개혁교회연합회총재 김권현 목사와,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박형철 목사가 3개 단체가 연합하여 8월 14일 종로구 옥로로 190 여전도회관에서 대표자 150여 명이 모여 8.15 광복절 72주년 연합예배를 드렸다.

사)세계개혁교회연합회 상임부총재인 노종관 목사의 사회로 사)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박형철 목사가 기도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부흥총회 서경숙 목사가 시편 126:1-2절을 봉독하고 개혁종창단의 찬양과 대한예수교장로회성통총회 김병섭 목사의 색소폰 연주에 이어, 사단법인세계개혁교회연합회 대표회장 최옥석 목사가 “나팔절은 영적 대(大) 광복절이다”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8.15 광복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이요 축복이며 해방이 있습니다.”

16세기 유럽에서 로마교회를 중

심으로 하는 당시 카톨릭교회의 영적상태를 비판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정신으로 돌아가 교회를 개혁하려고한 종교운동으로 교황전통이나 유전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운동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칼빈의 정신을 이어받아 주로 개혁교회에서 형성된 정통주의 신학을 우리는 칼빈의 정통주의 신학이라 부르고 있는데 18세기에 이르러 계몽주의가 일어나 “이성으로 돌아가자”는 인간중심 사상이 일어나 종교의 혼란이 야기되었다.

그러나 계몽주의는 인류에 희망이 인류가 자멸되어 추락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세기에 이르러 신정통주의가 일어났으나 무너져 오직 하나님의 말씀중심의 신앙으로 일어서게 되었다. 그러므로 21세기에 이르러 늦은 비 성령으로 일어나게 되었으며 유월절의 예수님의 고난, 무교절, 예수님의 장사, 초실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속에 나팔절의 늦은 비 성령으로 우

리가 준비할 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8.15 광복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며 이제는 남의 나라에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더더욱 나팔절을 기억하며 영원한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특별기도에 “나라와 민족 남북통일을 위하여” 사단법인 세계개혁교회연합회총재 김권현 목사가 기도하고, “한국교회와 1,200만 성도를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기도총회 총회장 김성한 목사가 기도하고, “일본회개측구와 우리나라 독도지킴이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이사 임정태 목사가 기도한 후, 찬송가 434장을 합창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총회장 강희준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사회자 노종관 목사가 만세삼창을 한 후 사단법인 한국개혁교단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침수 지역 자동차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이번 폭우로 침수된 자동차만 1,000여대를 넘어서는 것이라 예측이다. 장마와 태풍에 따른 침수 피해는 매년 반복되는 재해이지만 피해자들은 당혹스런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침수차는 허위매물 중고차로 둔갑해 2차, 3차 피해를 양산한다. 침수차 피해, 얼마나 보상받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침수차란

침수차 기준에는 논란이 있지만 엔진룸과 실내 매트까지 물이 들어와 쫓았다면 일단 침수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잠기는 걸 뜻하며, 운행 중이든 주차 중이든 상관없다.

▲보상처리 과정은

침수된 차는 수리 전까지 시동을 켜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 견인서비스를 이용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다음 자기차 손해(자차)에 가입한 경우 손해사정을 진행한다. 침수차가 수리 불가능하거나 수리를 하더라도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다할수 없는 절대전손 상태가 되면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자동차 가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져간다. 특히 올해부터는 침수전손차를 전량 폐차하도록 권고

침수차 정의부터 보상기준까지 보험사마다 천차만별

침수차가 중고차로 둔갑? 침수전손차 올해부터 폐차해야

하고 있어 침수전손 중고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의 자동차 가치보다 수리비가 적은 침수분손차는 수리를 거쳐 운행이 가능하다.

▲보상기준

주차중 침수 손해를 입었을 때는 어디에 주차했느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 당초 침수 피해가 예고된 지역이었거나 경찰이 통제하는 곳이었다면 개인 과실로 인정돼 보험사에 따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정해진 주차구역이었다면 문

제가 없다.

차 문으로 물이 들어온 때에도 보상받을 수 없다.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도어나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바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는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도 보상대상이 아니다. 화물차의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으로는 적재함에 있는 내용물을 보상받을 수 없다.

▲침수중고차 왜생길까

침수 손해를 당했음에도 사고발

생을 신고하지 않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 일이 있다. 예를 들면 대포차이거나 침수분손 시 지 않은 상태에서 도어나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바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는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도 보상대상이 아니다. 화물차의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으로는 적재함에 있는 내용물을 보상받을 수 없다.

▲침수중고차 왜생길까

침수 손해를 당했음에도 사고발

리해 중고차로 되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침수차임을 밝히지 않고 일반 정상매물로 속여파는 것은 사기행각이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국토부 등이 보험사에 침수전손차를 모두 폐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침수중고차 파하는 방법

보험개발원은 카히스토리서비스를 통해 침수차 정보를 무료 제공한다. 기존에는 사고 기록이 넘어 오기까지 침수전손의 경우 10일, 침수분손은 3개월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2016년 12월부터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사와의 협력을 통해 자료집적기간을 1일로 단축해 실시간으로 침수사고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침수 중고차 유통시기가 유बंध하는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이다.

더불어 시청각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에어컨을 작동했을 때 진흙냄새나 심한 곰팡이 냄새 등 악취가 난다면 침수 피해를 의심한다. 또 안전벨트를 끌까지 잡아당겨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변색이 됐는지 여부를 살핀다. 시거잭과 시트 스프링, 트렁크 바닥, 연료 주입구 등 진흙을 닦아내기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중고차 구매시 인근 정비소에서 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저스타임즈 · 언론부흥사협의회

지저스타임즈 이사회 및 언론부흥사협의회에서는 문서선교에 뜻을 같이할 이사님과 능력 있는 부흥사님의 가입을 전적 환영합니다. 현재 인터넷(<http://jtntv.kr> <http://cpj.kr>) 두 곳에서 많은 정보와 교계뉴스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정기남 목사 (발명인)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	 이규필 목사 (합동부흥총회총장)	 정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정대성 목사 (삼성중앙교회)	 강요섭 목사 (순복음반은교회)	 이은자 목사 (부천별빛중앙교회 부목)	 박한규 목사	 이홍희 목사 (축복받은교회)	 한홍구 목사 (호헌총회총장)	 박형회 목사 (성원교회)	 박권민 목사 (예복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백운성 목사 (안신지서사장)	 박동훈 목사 (대신총회부총회장)	 홍형표 목사 (경북총회사무총장)	 박동욱 목사 (별빛교회)	 최낙헌 목사 (신성그리스도교회)	 박궁숙 목사 (주성회감정예인교회)
 박수영 목사 (대구행복성교회)	 이기학 목사 (포항아름다운교회)	 주은총 목사 (은총기도원정)	 이상중 목사 (새동진교회)	 박완근 목사 (두란노교회)	 김상익 목사 (신용교회)	 노병주 목사 (취재부정)	 오종설 목사 (홍성제일교회)	 박연자 목사 (광은교회)	 김선우 목사 (연부협공동회장)	 배정희 목사 (일몰교회)	 류기형 목사 (함동흥성대원 회장)	 조연민 목사 (시온교회)	 김부경 목사 (갈보리교회)	 유순옥 목사 (조예교정성교회)	 김창숙 목사 (예능부기자)	 우재성 목사 (영동월성교회)	 배영 목사 (금성신교회)	



지저스타임즈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암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TEL 070)8230-0034, FAX경음 032)672-3031, H.P 010_5468-6574
E-mail : jtpress@hanmail.net / jtntvcpj@naver.com



2017 주님과 함께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 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경외함
성경: 시편 72:5-7
찬양: 546장

‘저희’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곧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해와 달을 말한 것은 우리가 해와 달에 근거해서 시간을 세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오늘까지 제 궤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의로 나라를 다스릴 때 성도들은 해와 달이 있는 동안, 즉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과 기도를 올리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목: 메시아의 왕국
성경: 시편 72:8-11
찬양: 36장

본문은 의의 왕 곧 장자 오실 메시아의 통치 영역이 크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곧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의로운 왕 앞에 완전히 굴복할 것이며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이나 아라비아 반도의 나라들, 즉 온 세계 열방이 이스라엘의 의의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 왕국만을 가리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온 세계의 주이시며 세계 열방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주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섬길 것입니다.

제목: 금홍의 왕
성경: 시편 72:12-14
찬양: 346장

메시아께서는 의의 왕이실 뿐 아니라, 또한 금홍이 풍성한 왕이십니다. 그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 도울 자가 없는 자, 고난당하는 자, 압박과 강포를 당하는 자를 금홍히 여기십니다. 본

문에서 ‘그들’은 진실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메시아께서는 그들을 금홍히 여기고 그들의 파를 귀하게 보십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메시아께서는 가난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제목: 살아계신 주
성경: 시편 72:15-16
찬양: 171장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8:20). 히브리서 저자도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 직분도 갈라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 간구하심이니라”고 증거하였습니다(히 7:24-25).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제목: 영광의 나라
성경: 시편 72:17-19
찬양: 286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며 만왕이 그 앞에 굴복하고 열방이 다 그를 섬길 것입니다(8, 11절). 또 그의 이름이 영원하며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고 찬송할 것입니다(17-1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의 왕, 영원한 왕이십니다(사 9:6-7). 그의 나라는 의와 평안이 충만할 것입니다(롬 14:17).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주로 주셨음을 감사하며 찬송하고 또 그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영광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제목: 선한 마음
성경: 시편 73:1-3
찬양: 431장

시편 저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시기하였기 때문에 낙심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부정할 뻔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중 마음에 정결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끗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하고 선한 말과 행동을 하며 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케 된 것입니다.

제목: 악인의 형통
성경: 시편 73:4-9
찬양: 337장

시편 저자는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나 재앙도 없습니다. 그들은 또 경제적 유여함도 누립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습니다. 그들

은 환경적으로도 평안합니다. 그들은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습니다. 또 악인들은 교만하고 강요합니다. 또 그들은 남을 조롱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거만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도 서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형통함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입니다.

제목: 철저한 심판
성경: 시편 73:10-12
찬양: 411장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특히 형식적인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신에 악한 자들에게로 돌아와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듯이 그들과 친근히 하며 그들의 말을 자꾸 들음으로써 악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겠는가라는 불신앙적 말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불경건하고 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평안과 풍족함과 형통함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에는 철저한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제목: 하나님의 진심
성경: 시편 73:13-14
찬양: 257장

시편 저자는 악인들의 평안과 형통을 보면서 자신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며 산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손을 깨끗이 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손은 사람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성도를 간섭하시고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그를 징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히 12:5-6).

제목: 진리의 성령
성경: 시편 73:15-17
찬양: 191장

시편 저자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믿을 없이 잘못 판단하는 죄를 범한 뻔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건의 현재만 보고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 일의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말이며,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편 저자는 성소에 들어갈 때 그것을 바르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 곳이며 성령께서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진리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제목: 악인의 멸망
성경: 시편 73:18-20
찬양: 569장

악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악인들

이 평안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일이며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시 1:6) 하나님의 재앙은 졸지에, 한 순간에 임합니다. 대형사고가 예기치 않은 때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한 순간에 황폐케 하시고 전멸케 하십니다. 사람이 잠을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할같이, 주께서 깨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는 그들의 부귀 영광과 권세를 멸시하실 것입니다.

제목: 경건한 자
성경: 시편 73:21-23
찬양: 253장

시편 저자는 자신의 잠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마음이 쓰라리고 괴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을 “주의 앞에 짐승”이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이 세상의 기본적 진리를 알지 못했으니 어둡고 무지한 일이며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인간다움은 지혜와 지식에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었으니 어찌 짐승과 같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무지하였지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한 자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

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드십니다.

제목: 성도의 현재와 미래
성경: 시편 73:24
찬양: 180장

본문은 성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성도를 그의 교훈으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하고 구주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후에’라는 말은 죽은 후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히 9:27). 성도가 죽은 후 들어갈 천국은 영광의 세계입니다.

제목: 이성적인 왕
성경: 시편 73:25
찬양: 92장

바른 판단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산들과 작은 산들은 나라들이나 마을들을 가리킵니다. 불의는 나라들과 동네들을 혼란과 불행에 빠지게 만드지만, 의는 질서와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율법에 규정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레 26:3-6). 또한 의로운 왕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고 곤란한 자들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압박하는 자들을 꺾을 것입니다. 본 시편의 왕은 이상적인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 건강심계

1. 병이 생기면 의사를 부르는 것과 함께 목사를 불러라.
 2. 당신의 몸, 마음, 영혼의 완치자는 그리스도인을 믿으라.
 3. 당신 몸은 영혼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귀중히 하라.
 4. 모든 복수심과 미움을 버려라.
 5. 당신을 위해 수고하는 의사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
 6. 매일 운동을 하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 시간을 정해 놓으라.
 7. 항상 건강을 생각하고 약한 마음을 품지 말라.
 8.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바로 건강의 원천임을 항상 기억하라.
 9. 성경에 기록된 건강의 규칙들을 연구하고 실천하라.
 10. 질병의 치료자는 의사지만 완치자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 노만 빈센트 -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저자



- 얼때이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3. 불필요한 대화를 줄여라. 잡담은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린다.
 4.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 한번 지난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5.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피하라. 극단적인 것은 송곳과 같아서 남에게 상처를 준다.
 6. 주위를 항상 청결하게 하라. 몸, 옷, 집, 사무실 등을 깨끗하게 하면 마음도 밝아진다.
 7.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라. 선한 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
 8. 자신이 본받을 만한 인물을 설정하여 이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라. 훗날 그 사람과 닮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9. 한번 결심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10. 정욕에 빠지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쾌락 때문에 인생 전부를 실패했다.
- 벤자민 프랭클린

성공적 인생을 위한 10가지 생활수칙

1. 절제를 실천하라. 몸이 나른해질 정도의 과식을 피한다. 음식과 사물에 대한 욕심은 건강과 지혜를 빼앗아간다.
2.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라. 사소한 일에

소진우 목사 2016년-2018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칼럼리스트

2016년 7월
3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3-9 심야특별기도대성회(예복교회)
11-13 모리아교회(조선의목사)
18-21 소망교회(최유식목사)
25-28 에덴금식수양관(양희목원장)
31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016년 8월
10-12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5-18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22-25 감람산기도원(이목관원장)
28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9-1 천문기도원(최정숙원장)

2016년 9월
5-8 교단총회
12-17 추석주간
19-23 선교지방문
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6-28 다사랑교회(방종현 목사)
29 군산열교회

2016년 10월
3-6 에스겔교회(김양선 목사)
10-11 정기노회
17-21 임원수련회
23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4-27 새진영교회(설정학 목사)
31-11,2 홍주교회(고영석 목사)

2016년 11월
5 인안칼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7-9 삼물교회(고정익 목사)
14-16 경천교회(이원정 목사)
17-18 노회지교회(심방)
20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1-23 총회영성대회
28-30 행복예수원교회(마영건 목사)

2016년 12월
4-7 주님의교회(오영석 목사)
12-15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18-24 거울부흥성회(예복교회)
26-30 은사랑교회(최태식 목사)

2017년 1월
2-4 거창성결교회(김성철 목사)
9-12 실목교회(조만희 목사)
16-18 풍기교회(백현기 목사)
23-28 (인도선교)
30-2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2017년 2월
3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6-9 감람산기도원(이목관 원장)
13-17 선교지세미나
20-22 초대총만교회(윤복남 목사)
27-1 중동교회(서종표 목사)

2017년 3월
6-10 필리핀 예복교회 헌당예배 및 선교지 방문
봄철 축복 대 심방기간

2017년 4월
3-5 홍주교회(고영석 목사)
6 오산리금식기도원(경원환 원장)
9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10-13 오정성화교회(이주형 목사)

17-18 정기노회
18-20 양배교회(정진수 목사)
24-27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017년 5월
7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8-12 네팔선교지방문
15-17 주영광교회(지재문 목사)
21-24 사랑의빛교회(오성민 목사)
29-31 초대교회(윤호준 목사)

2017년 6월
4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8-12 빛과소금교회(송영만 목사)
12-16 선교지사역자세미나
18-30 본교회 2주년축신대성회

2017년 7월
2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3-6 광선수양관(방만석 원장)
10-12 사랑의교회(고정옥 목사)
17-19 모리아교회(조선의 목사)
24-28 선교지신학영어세미나
30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017년 8월
3 안양칼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7-10 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 원장)
11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4-17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21-24 감람산기도원(이목관 원장)
27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8-31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017년 9월
4-8 은누리복음화협의회수련회(임기호총재)
11-14 교단총회
18-21 풍기교회(백현기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5-27 비전교회(김경원 목사)

2017년 10월
2-5 추석주간
9-10 정기노회
16-18 주사랑교회(조연오 목사)
22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30-4 인도사역자방문주간

2017년 11월
5-8 주안중앙교회(박윤순 목사)
13-15 열방교회(최용구 목사)
19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0-22 열린중앙교회(신동훈 목사)
27-30 노회선교지방문

2017년 12월
4-6 삼물교회(고정익)
11-14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18-21 과천예복교회(노영수 목사)
26-29 송구영신을 위한 산상기도

2018년 1월
1-3 양평지역연합성회(회장 홍성장 목사)
8-10 상대교회(황인옥 목사)
14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15-18 배방중앙침례교회(임병환)
21-24 안양성문교회(윤도원 목사)
29-1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2018년 2월
2-5 감람산기도원(이목관 원장)
11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12-17 설 주간
19-21 점촌교회(김위수 목사)
26-28 실목교회(조만희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 (장암동)

수도권지역 주택 · 대지 특별분양

전원주택지 1차 택지완료

전원주택 2동 건축, 1동 건축허가, 6동 건축준비완료

(임야 33㎡ 당 40만원, 약 6600㎡ 매매함)

은행대출 분양가에 70%

여주상수도개설, 전기, 통신(인터넷, 유선방송) 지중화

목회자·성도·일반인 누구든지 노후에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여주전원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대지 특별분양 (6,820만원)

현재 또는 2~3년 후에 건축하실 분을 위하여 대지를 분양합니다.

(대지 330㎡+도로(33㎡)=363㎡)

평당 3.3㎡/62만원×363㎡=합계 6.82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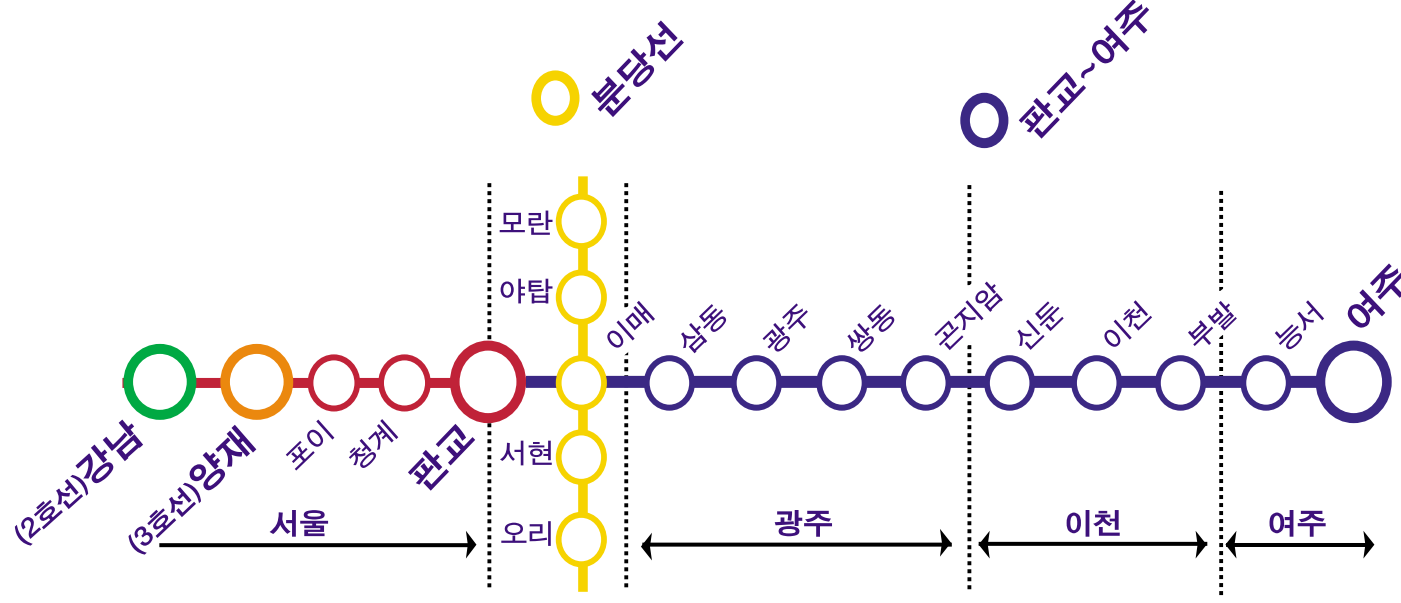
목조주택 특별분양

(2층, 99㎡, 1억 8500만원/ 방3, 화장실2, 거실, 다용도실)

(1층, 72.6㎡, 1억 5500만원/ 방2, 화장실1, 거실, 다용도실)

주택 99㎡ (1층 72.6㎡, 2층 26.4㎡)

대지 330㎡, 도로 33㎡, 합계 363㎡



교통 환경

- ◆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 중부고속도로, 광주에서 서원주까지 (56.95km)개통됨
- 대신IC에서 전원주택 현장까지 2km(2~3분소요).
- 강남, 분당에서 대신IC까지 30분.
- 천호동, 구리시에서 대신IC까지 45분.
- ◆ 여주 전철역(강남 분당에서 여주까지 11개역 57km)개통됨.
- 강남 분당에서 여주 전철역까지 45분.
- 전원주택에서 여주시청, 여주 전철역까지 차량 12분.
- 양평 전철역까지 차량 20분(양평에서 전철로 청량리까지 50분).
- ◆ 제1영동고속도로까지 20km 15분.
- 중부내륙고속도로까지 5km 5분.

**I 주 소: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초현리 312-4호(초현리 산 48번지)**
**I 전원주택 홍보 전화번호
010-5468-6574 / 010-3478-6574**
I http://jtntv.kr (JTNTV방송) 배너광고 중

분양 문의 02) 854-1355